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6호 2010년 8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hq@gmail.com



오연천 총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4년의 임기를 마친 이장무 총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이임사를 마치고 오연천 총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 이어 권이혁 전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장무 전임 총장이 오 총장에게 대학의 상징인 열쇠를 전달했다. 취임식에는 이수성·전우중호·박봉식 전 총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서만철 공주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총장은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비장학생으로 뉴욕대(NYU)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3년 33세로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30년 가까이 재직해 왔다. 2000년부터 4년간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모교 행정과 고등교육 발전에 힘써 왔다. 오 총장은 지난 7월 20일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2014년 7월까지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직 교수를 새로 임명했다.

<관계기사 2면>

PRSR STD
NON 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제25대 오연천 총장 취임식 외국대학 따라가는 데 급급해선 안돼 우수신입생 선발보다 탁월한 졸업생 배출

모교의 제25대 오연천 총장 취임식이 지난 8월2일 모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전임 이장무 총장의 이임식도 함께 거행됐다. 각각 부총장과 특임 부총장에

임명된 박명진 교수(언론정보학과)와 이승종 교수(화학부)도 이날 자리를 함께 했다. 오연천 총장은 취임사에서 "외국 대학을 따라가는 데 급

급할 것이 아니라 지적 주체성으로 아시아의 가치와 한국의 길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

상 외부의 잣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내면의 기준에 입각한 학문적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인간애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외국의 연구성과를 수입해 전달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학교의 명성에 안주하는 예비 기득권층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또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졸업생을 배출하

한나 김(김예진) 동문 주도

링컨기념관 앞서 정전협정일 기념식

지난 7월 25일 워싱턴 DC의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 광장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워싱턴 모뉴먼트를 배경으로 70~80대의 6.25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들과 손을 맞잡은 20대 우리 한인 청년들의 손에 쥐어진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이다. 이는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일을 앞두고 미주 우리 후손들이 결성한 'Remember 7.27(대표 한나 김)' 주최로 열린 정전 기념식이였다. 이 날 6.25 한국전 희생자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점등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 행사는 6월 25일 한국전 발발일을 상징해 오후 6시 25분에 시작해서 7월 27일 정전일을 나타내는 오후 7시 27분에 한꺼번에 촛불을 켜는 순서

로 진행됐다. 'Remember 7.27'은 한나 김(김예진 영문 2001) 동문이 주도해서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주류 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전일 기념행사를 올해 3회째 같은 장소에서 열었던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유산(Legacy of the Korean War)'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전용사들을 상대로 인터뷰해 한국전 당시 증언을 사료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했다. 이날 미 한국전 참전용사회(KWVA)의 William MacSwain 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의 참전용



한나 김 동문(가운데)이 개회사를 하는 가운데 미 한국전 참전용사회(KWVA)의 William MacSwain 회장이 촛불에 점등을 하고 있다.

사와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권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소비자행정국 부국장과 자원봉사 학생 등이 참석했다. MacSwain 회장은 "참전용사들은 처음 전쟁터로 날아갈 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웠던 희생과 봉사를 무한한 자부심으로 느낀다. 현재 한미동맹이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상태인 점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관계기사 3면>

특집·특별기획

한일병합 100주년 / 8.15 65주년(65년전 8월 /아이 엠 코리안).....8~9면

종 합

미주 • 모교 소식

상반기 동포 420명 모교병원 이용 서울대병원 LA사무소 집계

모교 서울대병원 LA사무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주에서 총 420명의 한인이 서울대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돼 월 평균 70명을 기록했다.

목적별로는 건강검진 70%에 진료와 수술 30%의 분포를 보였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이 87%에 수술과 진료가 13%였다.

의료비용은 진료, 검사, 시술, 입원, 수술에 따라 개인별로 최소 12만원~ 최대 2천만원으로 변동폭이 다양했다.

그러나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평균 수납액은 143만원(약1190달러)으로 조사됐다.

개인 또는 부부 위주의 건강검진에서 가족 단위의 신청이 늘었다는 것도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주 한인 동포들의 한국 의료관광이 단순 건강검진에서 진료나 수술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LA사무소장 애니스 박 동문(사진)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부터는 자녀를 동반하고 검진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또 중증 질환이나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초기에는 주로 일반 내과 위주의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신경외과 갑상선외과 유방외과 위장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과 정형외과 순환기 내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동문은 모교 서울대병원이 뇌종양 제거를 위한 감마나이프 시술이나 갑상선 암 치료에서 흉터를 남기지 않는 다빈치로봇 수술 등 세계적인 의료 시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나로 꼽았다.

서울대병원 LA사무소는 지난 2008년 11월 개소,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며 상담 및 진료 예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교 이건욱(외과)·안혁(흉부외과)교수팀

심장까지 퍼진 간암수술 두번째 성공 첫번째 환자는 현재 65개월째 생존

모교 서울대병원 이건욱(외과)·안혁(흉부외과)교수팀이 종양이 심장까지 퍼진 간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두번째로 성공했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수술 당시 환자 김모(여, 65)씨의 간암 세포는 하대정맥을 통해 심장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수술은 우선 외과 의료가 종양이 있는 간 부위를 절제한 다음 흉부외과 의료가 체외 순환장치를 이용해 심장을 정지시킨 후 심장과 연결된 대정맥 일부를 포함해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는 14시간의 대수술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수술은 체외순환으로 환자의 간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수술 전 간 기능이 일정부분 유지돼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심장을 정지시킨 뒤 심장으로 옮긴 종양을 제거한 수술은 이건욱 교수팀이 2005년 암 세포가 심장으로 퍼진 당시 62세 간암환자의 수술에 성공한 이후로 두번째다.

첫번째 환자의 경우 수술 뒤 건강하게 지내다 41개월 뒤 폐로 옮겨간 암세포가 발견돼 현재 항암제를 투여하며 65개월째 생존하고 있다.

이건욱 교수는 “심장으로 퍼진 간암의 경우 간 기능이 보존돼 있으면 심장을 열어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간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대 학	논문편 수	교신저자 수
서울대	24.8	30
울산대	12.5	13
KAIST	12	13
연세대	9.6	12
포항공대	8	9
고려대	7	9

생명과학 분야 TOP 40대 저널 논문 발표 결과 분석(2009년 7월 ~ 2010년 6월, 출처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최근 1년간 생명과학분야 최우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5명 중 1명이 서울대인으로 밝혀졌다(도표 참조).

생물학 연구정보센터(BRIC)는 Cell, Nature 등 생명과학분야에서 연구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널 40개

가 절반인 1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외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연구성과만 따로 수집한 Medical Science 분야에서는 50명 중 13명이 서울대 병원 의사들로 나타났다.

이번에 집계된 논문은 총 134편으로 그 중 24.8편을 서울대

생명과학 우수논문 모교가 최다 5명 중 1명꼴로 서울대 학자

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이들에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 과학자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저널에 교신 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은 총 154명이었다.

그 가운데 19.5%인 30명이 서울대인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카이스트(KAIST) 연구

연구자가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대학교가 두번째로 많은 12.5편을 발표했다.

‘BRIC’은 국내 최대의 생명과학정보 미디어로 알려져 있다.

이 미디어에서는 논문인용 지수(IF) 10 이상인 생명과학 관련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다.

<서울대 홍보팀>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장석정(Ch)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혜(사)

신임 보직교수 임명

모교는 지난 7월 이미 내정됐던 부총장과 교무처장을 23일(금)자로 선임한데 이어 26일(월)자로 특임부총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보직 교수단을 구성했다.

또한 같은 날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박명진 부총장(언론정보학과)과 김하석 전 특임부총장(화학부), 이승중 신임 특임부총장(화학생명공학부)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신임 보직 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는 서울대의 비전을 마련하고 대학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맡아 활동한다.

신임보직 교수의 직함에 따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홍보팀>

보직명	소 속	성 명
부총장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박명진
특임 부총장및 대학원장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	이승중
교무처장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김홍중
학생처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이학래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겸)	의과대학 의학과	신희영
기획처장	경영대학 경영학과	남익현
입학관리본부장	사범대학 교육학과	백순근
대의협력본부장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김준기
정보화본부장및 중앙전산원장	의과대학 의학과	한준구
기초교육원장	인문대학 철학과	허남진
발전기금 상임이사	공대 전기 컴퓨터공학부	김형주
교무부처장	인문대학 영어 영문학과	이제영
학생부처장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원우
연구부처장및 산학협력단 부단장	약학대학 제약학과	이봉진
기획부처장	공과대학 산업 조선공학부	이정동
기획부처장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강준호
정보화본부장 중앙전산원부원장	경영전문대학원	장정주



제25대 오연천 총장(왼쪽)이 신임 보직 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 흰옷 입은 이는 모교 최초의 여성 부총장에 임명된 박명진 교수.

이번 호의 차례

3. 조기에양 김예진 동문/오바마 성명
- 4~7 미주 동문동정
8. 한일병합 100주년/한일 지식인성명
9. 65년 전 8월/아이 엠 코리아
10. 중도에 길을 묻는다

11. 8월에 돌아보는 이념분열 100년
12. 여름 나그네
13. The Triumphant Decline of WASP
14. 괜한 숙병/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15. 세계명화 감상<레오나르도다빈치>
16. 지역소식<시카고>
17. 지역소식<필라델피아>

18. 지역소식<남가주/뉴욕>
19. '그냥건기'를 읽고/인류는 한 형제
- 20-21. 고국 동문 신간안내/동정
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 23-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 31-32. 광고

기획

조기게양 'Remember 7.27' 의 한나 김 동문

해마다 7월27일엔 한국도 조기(弔旗)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한나김(김예진, 영문 2001)

미 정부가 7월27일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일'로 정해 조기(弔旗)를 게양하도록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는 동문 한나 김이 조직한 'Remember 7.27'의 역할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올해도 Obama 대통령은 이 날을 치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을 맞은 김 동문의 바람과 Obama대통령의 성명문을 싣는다.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미국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조기(弔旗)가 게양됐다.

미국은 작년부터 이 날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날'로 제

정해 정부와 모든 기관에서 조기를 달도록 하고 있다.

이 날 미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국가가 함께 조기를 게양했으면, 하는 게 이 법안을 통과시킨 우리들의 마음이다.

작년에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이라는 미국의 새 기념일이 탄생한 것은 60년 전 치러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7월 27일이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현충일'과 '베테런스 데이'가 용사들의 기념일이지 않은가.

그런데다가 세계 2차대전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파위가 막강한 미국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만을 위한 기념일을 따로 제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로, 한국의 서울대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우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히 선진대열에 오르게 된 것은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할아버지 세대와 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젊은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우리 한국인의 삶의 근간인 효(孝)의 근본사상은 '보답과 보은'이다. '추양계효(追養繼孝)' 즉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법안이야말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이 의미를 잘 살려 휴전을 종전으로 바꿔 '세계 평화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때부터 '리멤버 7.27'을 조직하고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해 미 상·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 기념일로서 조기 게양까지 보게 됐다.

작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한결같이 받은 질문은 "왜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이 아니고 휴전일인 7월 27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보다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7월 27일 휴전일을 상기시켜 아직도 전쟁의 구름이 머무는 대한민국에 평화의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6월 25일은 우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참전해서 희생된 분들에게 불행한 과거지만 7월 27일은 평화로 가는 미래 지향의 날이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60주년 이 되는 해이기에 미국 곳곳에서는 기념식과 참전용사 감사행사가 열리고 심지어 고속도로 광고판에도 감사의 표시를 하곤 한다.

환갑의 의미인 60년 만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이런 우리를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라고 도리어 고마워한다.

우리 '리멤버 7.27' 팀원들은 올해도 워싱턴 6.25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들과 미정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휴전일 기념행사를 했다.

한국 곳곳에서도 이런 감사와 평화의 의지가 담긴 행사가 해마다 7월 27일에는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면에서 계속>

CBS 인기 프로그램인 '서바이버' 우승자로 유명인사인 권을 부국장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한국전과 전쟁 이후 고난에 대해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낸 부모 세대, 그리고 자유를 지켜준 참전용사의 희

지난 해 김예진 동문이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핑겔 하원의원과 함께 '한국전 참전 용사법' 법안 통과 자축연에서 이를 기념하는 표지판을 들고 있는 장면이다.

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2010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Release July 26, 2010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PROCLAMATION



Today we celebrate the signing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t Panmunjom and we honor our servicemembers who fought and died for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Korean War.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nd the birth of an enduring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stronger today than ever before.

Our alliance is rooted in shared sacrifice, common values, mutual interest, and respect, and this partnership is vital to peace and stability in Asia and the world.

Since our Nation's founding, the United States has relied on our Armed Forces to ensure our safety and security at home, and to protect lives and liberties around the globe.

When Communist armies poured across the 38th parallel, threatening the very survival of South Korea, American troops braved unforgiving conditions and rallied to the young republic's defense.

Tens of thousands of our Nation's servicemembers lost their lives, and many more were wounded, declared missing in action, or taken as prisoners of war.

The courageous service and ultimate sacrifices of these patriots and our allied combatants safeguarded a free

government and vibrant economy in South Korea, forging a bond between our people that stands strong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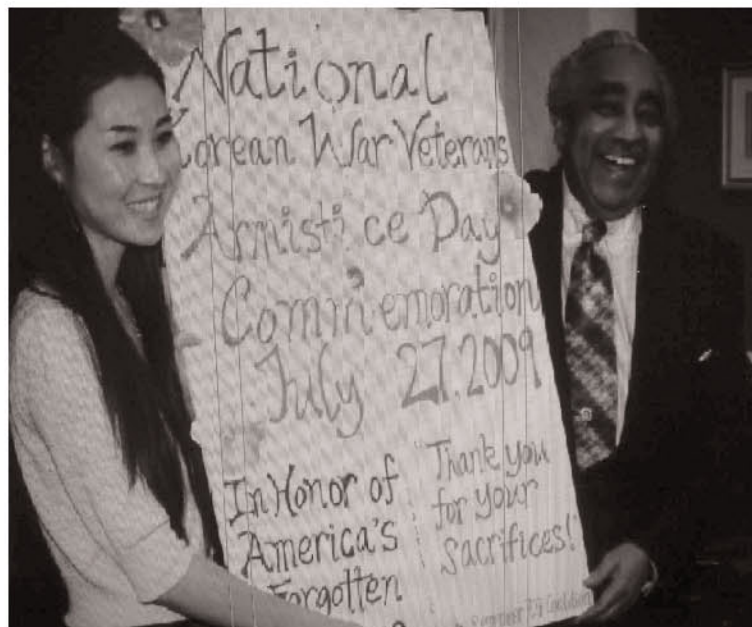
As we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eventual conclusion of hostilities at Panmunjom, let us raise our flags high to honor the service and valor of our veterans, to reflect on the principles for which they fought, and to reaffirm the unshakeable bond between South Korea and our Nation.

NOW, THEREFORE, I, BARACK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do hereby proclaim July 27, 2010, as 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I call upon all Americans to observe this day with appropriate ceremonies and activities that honor our distinguished Korean War veterans.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wenty-sixth day of Jul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t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thirty-fifth.

BARACK OBAMA



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를 주도한 김 동문은 "6.25 전쟁은 과거가 됐지만 7.27 휴전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많은 사람이 한국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정전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널리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파하고자 정전기념일 행사를 3년째 열게 됐다"고 말했다.

촛불 점등 행사를 진행한 데 대해 김 동문은 "천안함 사건에서 보았듯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한반도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동문은 지난 해 정전협정 체결일의 미국 국가기념일 지정에 이어 올해 한국전쟁 60주년 상하원 공동결의안 추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한국전의 의미를 알리는 데 큰 몫을 담당해오고 있다. 미 한국전참전용사회는 김 동문을 명예회원으로 초청하고 있다.

김 동문은 앞으로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한국전 교육재단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전 참전 노병들과 두 손을 꼭 잡은 김 동문은 "한국에서도 매년 7월 27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전일을 기념하는 조기가 게양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동문 동정

부임·승진·학술대회·공연·출간·전시회



과기업 동문들 대규모 학술대회 열어 11~15일 워싱턴주 시애틀서

과학기술에 대한 한미학술대회(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UKC 2010)가 8월 11~15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벨레브 다운타운(Bellevue Downtown)에서 열렸다.

이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이호신 교수, 토목공학 78, 사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등과 공동 주최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KSEA 39대 회장으로 동문인 김재훈 박사(공대 72)보잉연구소와 한국과총(KOFST) 회장 이기준 박사가 공동으로 대회장을 맡았다.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은 버지

니아 공대의 하동삼 박사, 한국측 프로그램 위원장은 모교 공대 이용환 박사 등이다.

김재훈 회장은 “올해로 12회인 2010 한미학술대회 ‘UKC 2010’ 주제는 ‘Green Technology For A New World’로 한미 공동연구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재미 과학기술자들과 고국 과학기술단체 및 연구진 등 총 1천 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학술대회로 첨단 과학기술의 소개와 정책 등 분야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와 친목에 큰 성과를 올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학술 프로그램은 기초과학(Fundamental), 에너지공학(Energy), 정

보통신공학(Information), 생명공학(Life), 교통산업공학(Transportation) 등 5개 기술영역(Technology Domain)이다. 각 영역은 2개의 기술 분야로 세분돼 모두 20개 분야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기간 중 총 60~70개의 세션이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특별히 선정된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워크숍(Workshop)도 열렸다. 대회 기간 중 KSEA는 KOTRA와 함께 행사장에서 Job Fair의 채용상담회(UKC2010 Career Development & Job Fair)도 가졌다.

Job Fair는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정부, 기업 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 및 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글로벌 고급 인력의 모국 유치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박희례 동문

캘리포니아 한의대 학장 승진

캘리포니아 한의과 대학(Five Branches University •총장 론 제이드만)의 부학장으로 재직 중인 박희례 동문(사진)이 지난 7월 한국어 프로그램 학장으로 승진했다.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박희례 동문은 지난 1993년 도미해 이 한의과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 뒤 산타크루즈 소재 도미니칸 병원 암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한의과 대학으로 옮긴 박희례 동문은 그동안 한국어 프로그램 부학장을 맡아 왔다.

박희례 신임 학장은 특히 미주 한인 여성 봉사단체인 글로벌 어린이 재단(GCF) 샌프란시스코 지부 회장을 맡아 사회 봉사에도 큰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신임학장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유능



하고 훌륭한 동포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한의과 대학은 1984년에 개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으며 부속 한방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3~4년 석사과정 졸업자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 어느 곳에서나 한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장순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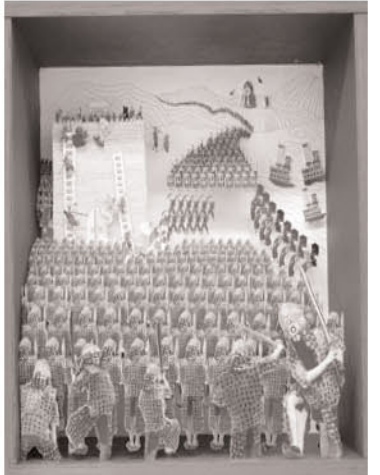
다인종 그룹전 참가

임장순 동문이 지난 달 7일 Los Angeles 다운타운의 POVe-volving 갤러리에서 열린 2주년 그룹전에 참여해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그룹전에는 20여 명의 젊은 다인종 작가들이 각각 다양한 형태와 기교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했다.

이번 그룹 전시회에서 임 동문은 ‘전쟁놀이’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작품(사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 동문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닌, 전쟁을 위한 전쟁,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만의 전쟁놀이를 하기 위해 직접 감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많은 수의 ‘나-군인’들을 만들어 냈다”고 작품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임 동문은 모교 미대 동양화과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그 뒤 2005년 한국의 갤러리 라메르에서 ‘장순 나라’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김영목 동문

뉴욕 총영사 부임

주 이란 대사로 재임 중이던 김영목 동문(57·불문과·사진)이 뉴욕 총영사에 임명돼 10일 부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김정근 뉴욕 총영사 후임으로 김영목 동문을 뉴욕 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에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목 신임 총영사는 1953년 서울 출생으로 모교 불문학과

를 졸업한 뒤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주 유엔공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 경기 국제관계 자문대사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이란 대사로 임명돼 근무해왔다.

김정근 전 뉴욕 총영사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로 발령받아 귀국했다. 따라서 그동안 뉴욕은 주낙영 부총영사가 총영사직을 대행해 운영돼 왔다.



이태영 동문 신간출간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

공인투자자문회사 IPM의 대표이사인 동문 이태영 박사가 자산관리 지침서인 ‘록펠러처럼 자산관리하라’ (은행나무 간)를 펴냈다.

부제로 ‘상위 1%에게 배우는 3대, 그 이상을 내다보는 현명한 자산관리의 지혜’라고 붙였다.

‘부자 3대 못간다’는 속담과 달리 한국인들도 여러 세대에 걸쳐 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다.

1세대가 어렵게 모은 자산을 2~3세대가 흥청망청 쓰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자산의 의미와 집안 자산 관리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지식에 관해 서술했다.

또 재산의 대물림, 재산 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투자활동, 외국 자산으로의 다변화 필요성과 도움될 미국 및 외국 시장의 기본 지식도 포함했다. ‘패밀리 오피스’와 ‘트러스트’ 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부까지 소개한다.

이 동문은 모교 법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메릴랜드 대 솔즈메리 캠퍼스 경제 및 마케팅학과 학과장을 지냈다. 한국 롯데그룹 국제관계 담당 이사와 메릴랜드주 국제관계 자문위원, 하와이 동서센터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IPM의 대표이사이며 한국 투자자문회사 KIPM의 특별고문으로 미국과 한국 기업의 자산관리 및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복음성가(CCM) 가수 최덕신 동문

애틀랜타 두란노 교회서 공연

한국 복음성가(CCM)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최덕신 동문(사진)이 지난 7월 애틀랜타 스와니의 두란노 교회(담임 최진목 목사)에서 공연을 가졌다.

모교 음대 성악과 출신인 최동문은 1980~90년대 주찬양선교단의 리더로 활동하며 한국 CCM의 기틀을 잡았다.

현재까지 3천여 차례의 국내외 집회를 인도했으며, 총 15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최동문은 이날 대표곡인 ‘나’, ‘그 이름’, ‘나를 만드신 예수’, ‘주를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시편 23’, ‘여호와 우리 주여’ 등을 부르며 경험을 이야기했다.

최씨는 “CCM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문화 사역이 새롭게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사역들

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안전하고 건강해진다”며 “앞으로 주찬양선교단의 사역을 다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최진목 목사는 “찬양집회를 한 최덕신씨는 개인적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일어나 이번 북미주 찬양집회 투어에 나서게 됐다. 현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이 찬양집회에서 아픔을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 동정

특별강연 · 인물 · 학술대회

강창욱 · 최종고 동문

'준원 이광수' 세미나서 특별강연

동문 강창욱 교수(의대 55, 존스 홉킨스대)와 최종고 교수(준원 이광수의 생애와 예술을 재조명하는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는 지난 7월 필라델피아 미주 한국문화연구회(회장 양경자)가 한국 근대 문학의 선구자인 준원 이광수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마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강창욱 교수는 '이광수와 현대 정신 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최종고 교수는 '이광수와 찬송가'란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위한 강연회를 가졌다.

강 동문은 존스홉킨스대 정신과 교수며 최종고 동문은 모교 법대 교수 및 한국법사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인문학 학회 회장으로 한국의 인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미주 한국문화연구회는 "1세대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광수 선생의 진면목을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세미나를 가지며 이를 통해 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24일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필라 교외에 거주하는 이광수의 딸 이정화 박사는 "양경자 회장의 권유로 '준원 이광수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 대한 편견과 잘못 알려진 면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래 사진은 필라델피아 미주 한국문화연구회 관계 인사들(왼쪽부터 차기훈씨와 이정화 박사, 양경자 회장)과 최종고 교수(맨 오른쪽) 모습이다.



세계 미래포럼 이사장 이영탁 동문

미주 동포사회는 한국 발전 위한 정보 창구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영탁(상대 69졸) 동문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한인사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미드웨스턴포럼(회장 양호) 초청으로 지난 7월 LA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이영탁 동문은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성장 속도가 빠른 다 이대미한 국가로 다양한 도전과 노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 동문은 "LA지역은 해외 한인 사회 중 가장 큰 규모로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LA한인들은 정보를 얻는 창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 동문의 강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경제 등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 모두가 80-90세까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디지털 평등 사회가 될 것이다. 디지털 평등 사회란 모든 정보가 인터넷 등 디지털 망을 통해 균등하게 제공되는 사회다. 미국의 대도시나 네팔의 산간 마을까지 인터



넷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평등해질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평등사회는 교육과 부의 평등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부의 평등이 이뤄진 사회에서는 직업이 돈벌이 수단보다는 자아성취의 수단이 되는 만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직업선택이 미래를 사는 요령이다.

한국인들은 과거에 엄메이거나 현재만을 보며 사는 경향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래 한국이 따라야 할 선진국의 롤모델로 한국이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선진국 건설을 위한 기틀이 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은 미국의 장단점을 한국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Pixar사의 동문 조예원 조명 감독

애니메이션에 생명 불어넣는 빛의 마술사

지난 8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Toy Story 3'는 개봉 첫주 박스 오피스 흥행 수입이 무려 1억1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애니메이션의 명가 Pixar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동문 아티스트 조예원 감독이 있다. LA중앙일보가 조 동문에 대한 특집을 게재했는데 이를 요약해 전제한다.

애니메이션 Toy Story 3는 울여를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결과는 '대박'이었다.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 흥행 수입만 1억1천만 달러.

95년의 1편(2천900만 달러)과 99년 2편(5천700만 달러)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다. 남녀노소 없이 극장에 몰려 들었고 장난감들의 귀여운 소동에 웃고 울고 가슴 따뜻해졌다.

특히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마스하고도 회망한 분위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캐릭터에 공감하고 스토리에 몰입하게 하는 일등공신이었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Pixar가 디즈니와 함께 일궈낸 또 한번의 성공스토리 뒤엔 동문 아티스트 조예원 감독의 섬세한 감수성과 솜씨가 녹아있다.

"1,2편과 연결성을 찾으면서도 그 사이 발전한 테크닉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나와 있는 기술을 다 쓰면 사진처럼 느껴지는 포토 리얼리즘이 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전편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고 말 테니까요. 테크놀로지는 도입하면서도 판

객들이 '그때 그 우디, 그때 그 버즈'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신경썼습니다."

조 동문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조명 감독이다. '토이스토리3' 엔딩크레딧에서 찾을 수 있는 그녀의 타이틀은 마스터 라이팅 아티스트(master lighting artist).

"실사 영화에서 조명 감독이 하는 일은 그림자, 색깔, 빛의 밝기, 온도를 일일이 조절하는 일이지요. 픽사 조명팀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배경을 가진 사람과 미술쪽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요. 그 만큼 업데이트되는 테크놀로지를 쫓아가는 노력과 미학적 재능이 골고루 갖춰져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토이스토리3'에서는 장면마다 섬세한 조명 변화와 색의 향연은 관객들이 빠져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영화 초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앤디의 환상이 표현된 부분은 교대로 표현했고, 이어지는 현실은 저체도로 표현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1,2편에서는 항상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그려졌던 앤디의 방은 쓸쓸한 느낌이 배어나도록 표현됐다. 대학생이 된 주인공에게 버림받은 장난감들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해 서였다. 폭군같은 곰인형 '뽀로'로 대표되는 붉은 색과 장난감들의 주인 '앤디'로 대표되는 푸른 색을 대비시켜 위험한 상황과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들을 빼어나게 표현해내기도 했다.

애니메이션계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스토리다.

"자신의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 독창성 있는 단편을 많이 만들어봤으면 해요. 크고 작은 스크리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기회도 자주 만들어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좋죠. 입사를 위한 데모 작품을 만들 때도 테크닉 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단편을 만들어보게 좋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의 가능성은 크레디티브한 사람에게 열려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유학생이나 뒤늦게 애니메이션계에 입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온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조언한다. 입사 전 보다 입사 후에 더 큰 역할을 하기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예원 동문은 모교 미대 조소과를 거쳐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원 공부 중 한창 모션 그래픽 분야에 있던 99년 뉴욕 SVA(School of Visual Arts)로 유학과 컴퓨터 아트를 공부했다. 조 동문의 졸업작품을 눈여겨 본 스튜디오들이 조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드림웍스에 입사해 '슈렉2' 작업에 참여한 후 픽사로 옮겨 '카', '라파두이', '월 E', '업' 등에 참여했다. '토이스토리3'를 마친 지금은 내년 개봉 예정인 'Cars 2'를 작업 중이다.

최은영 동문 피아노 콩쿠르서 등상

54년 전통의 '월드 피아노 컴퍼티션'

54년 전통의 피아노 콩쿠르 대회인 '월드 피아노 컴퍼티션(World Piano Competition)'에서 최은영(28·이스트만 음대 박사과정) 동문이 동상을 차지했다.

최 동문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다단조 작품 18의 2번을 연주했다.

이번 콩쿠르는 신시내티 월드 피아노 컴퍼티션 재단이 지난 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아노

프 센터에서 개막한 '제54회 월드 피아노 컴퍼티션'이다. 이 콩쿠르에서 이고은(24·줄리아드 음대 석사 졸업)씨가 금상을 차지했다.

이씨는 13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15일 8강, 16일 4강전에 이어 18일 최종 결승전에서도 승승장구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결승에서 생상 피아노 협주곡 사단조 작품 22의 2번을 연주했다. 상금과 함께 뉴욕 링컨

센터의 엘리스 톨리 홀에서 독주회 영예도 가진다.

또 이화여대 출신 서혜리(31·신시내티 음대 박사과정)씨가 은상을 받아 한인 여학생들이 금, 은, 동상을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상을 수상한 이씨는 이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우승하고 싶은 이런 큰 대회에서 1등을 해 영광이다"며 "졸업 후 티칭과 함께 콩쿠르 대회에 계속 출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문 동정

특별강연·공연·부임·출간



유경화 동문의 '사이 앙상블'

미 정부 초청 '로열민속악제' 공연

타악 주자이자 철현금 연주자인 유경화씨가 이끄는 '사이 앙상블(The Sai Ensemble)'이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월 23~25일 보스턴에서 열리는 로열 민속축제에서 공연을 가졌다.

사이 앙상블은 거문고와 기타의 소리를 혼합한 듯한 '철현금' 음악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쇠줄을 술대로 뿜거나 뜯어 연주하는 철현금은 남사당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 고 김형철씨가 지난 1940년대에 고안해낸 악기다.

여덟 줄의 현이 쇠줄로 엮여

져 있어 그간 전통 현악기들의 명주실 음색보다 좀 더 현대적 미감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악기로 알려져 있다.

유경화(철현금, 타악), 이석주(피리, 태평소), 신현식(아쟁), 이소연(철현금, 거문고), 김민지(철현금, 타악), 임현빈(판소리) 등 6인으로 구성된 사이 앙상블은 이번 민속축제에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의 4회 공연을 통해 이국적인 음색을 지닌 한국의 철현금을 알리게 됐다.

유경화 동문과 5명의 단원들은 전통음악, 창작음악, 즉흥음악까지 국, 타악, 거문고,

유경화 동문(사진 가운데)이 철현금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부터 로열민속축제 사이 앙상블 공연 코디네이터인 하주용씨와 이석주, 신현식, 유경화, 이소연, 김민지, 임현빈씨.

판소리 등을 이용한 특유의 가락과 리듬, 장단으로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정통성을 보여주었다.

유 동문은 "철현금을 통해 새로운 한국 음악의 세계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뉴욕 관객들과도 만나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 동문은 모교 음대에서 거문고를 전공, 이후 김용배, 박병천, 김덕수 등으로부터 타악을 전수했다. 2000년부터는 해금의 강은일, 거문고의 허윤정과 더불어 프로젝트 그룹 상에서 활동해왔다. 또 1995년부터 철현금에 매료돼 이 악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세계 민속전통악기 워크 샵에서 미국인들에게 철현금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매년 미 전통예술위원회(NCTA)가 개최하는 로열 민속축제는 미국의 페스티벌 중에서도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속축제로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객이 다녀가는 전통예술 축제다.



모교 간호대 재학생들 미 지역병원 견학

“미 의료진 팀 워크 인상 깊었어요”

모교 간호대 재학생 중 일부가 메릴랜드 지역을 방문해 미국의 병원 시스템을 둘러보며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정적, 추천서, 영어 능력 등을 바탕으로 선발된 4명의 여학생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메릴랜드 대학병원과 하워드 카운티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시스템

을 살펴봤다.

한국 병원들과 비교해 시설은 어떻게 다르고 치료방법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과 의료진들이 일하는 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웠다. 이 밖에 '그래스루츠 센터'와 같은 노숙자 관리 클리닉을 비롯해 노인재활센터 등을 방문해 제

지난 7월 볼티모어 쇼크 트라우마 센터에서 모교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의료시설 견학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는 장면이다. 맨 오른쪽이 송수 회장.

제적인 관리 방법과 건강진단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등을 배우기도 했다.

참가 재학생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의견도 비중있게 고려되고 존중되는 등 의료진들의 뛰어난 팀워크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환자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이같은 미 병원 연수를 추진한 송수 하워드 한인회장은 “학생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대학 졸업 후 한국의료계에 진출할 때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16일 볼티모어 쇼크 쇼크 트라우마 센터에서 견학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홍삼열동문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 담임목사

홍삼열 동문이 최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동문 홍 목사는 1989년 모교 영문학도를 졸업한 뒤 감리신학교와 뉴크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부터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를 시작으로 Reseda First UMC 담임, 밴나

이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그 뒤 지난 7월 1일자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이다.

사건은 홍 목사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다.

이준남 동문 '100세인 클럽' 강의

암 진단시 환자와 보호자가 할 일

이준남(의대 60) 동문이 지난 7월 애틀랜타의 아시안아메리칸센터와 '100세인 클럽(대표 이준남)'이 공동주최한 공개 강화를 실시했다.

이준남 동문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치료 외 암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라는 주제로 공개 강화를 진행한 것이다.

이 동문은 “최근 한인들 중 암 환자가 늘고 있어 예방과 치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암 환자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과 치유에 대해 설명했다.

모교 의대 졸업 후 에모리대 의대 크로포드 통 병원에서 근무한 이 동문은 지난 1976년부터 지금까지 내과, 자연치료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이 동문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암 환자 서포트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통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인체는 움직이도록 디자인돼 있는데 현대 생활 방식은 인체를 점점 움직이지 않게 해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

게 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은 “암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잠을 잘 자고 꿈을 잘 꿀 때, 대인관계가 좋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은 “특히 방식에 관계없이 내면에 숨어있던 감정이 표현될 때도 치유가 일어난다. 글을 쓰면서 지난 날의 아픔을 다시 맛보거나, 예술, 문학작품을 통해 이전의 아픔이 승화될 때, 대화를 통해 속마음을 풀 수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동문이 진행하고 있는 ‘암환자 서포트 그룹 프로그램’은 총 8주 과정으로 암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을 찾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심리치료와 상담기법을 통해 암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문 금병달 목사 부부 '건강한 홀로서기' 출간

이혼은 쉽게 아픔지 않는 아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문 금병달 목사와 김정진 사모가 '건강한 홀로서기' (사진·노관순)를 출간했다.

부부는 서문에서 “사별이 1회적이고 종결이 있는 슬픔과 아픔의 과정이라면 이혼은 오랜 시간 걸리면서 쉽게 종결되지 않는 아픔의 과정”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

을 교회나 소그룹 모임이 제양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족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혈연을 뛰어 넘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의 가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책은 별거, 이혼가정의 회복 가이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는 ‘이혼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이혼에 대한 입장과 성경적 입장, 이혼가정의 충격과 회복, 이혼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부 ‘극한 고통의 파랑을 뚫고’에서는 영적 서포트 그룹의 이론과 실제 부모지원 그룹의 내력,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제언, 싱글아빠들을 위한 조연 등 부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실재를 담고 있다.

금 목사는 모교를 졸업하고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가정사역을 전공했다.



동문 동정

연주회·공연·출판



천미선 동문 독주회

“동포사회 클래식 보급에 힘쓸 것”

최근 애틀랜타로 이주한 동문 천미선 피아니스트가 지난 7월 알파레타 스타인웨이 피아노 갤러리(5950 Northpoint Parkway, Alpharetta)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독주회 곡목은 ▶슈베르트 즉흥곡 ▶쇼팽 발라드 ▶베토벤 소나타 ‘열정’ 등이다.

천 동문은 “애틀랜타로 이주한 지 2개월 만에 첫 연주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고 설렜다. 연주회는 첫 인사의 의미로 소규모 콘서트 홀에서 동포들의 귀에 익숙한 곡을 중심으로 꾸몄다”고 말했다.

고국에서 예원학교, 서울예술고에 이어 모교인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천 동문은 도미 후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 연주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 뒤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과정 중 논문을 남겨두고 있다.

천 동문은 “가족과 함께 뷰포드시에 거주하며 애틀랜타에서의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애틀랜타 한인사회 클래식 문화보급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인사회 규모가 큰 데 비해 클래식에 대한 인지도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 같아 아쉽다. 클래식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음악을 자연스럽게 듣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주고 싶다”고 밝혔다.

천 동문은 한국의 삼익 피아노 공룡, 세계일보 공룡 등과 미국의 신시내티 음대 협주곡 공룡, 실내악 공룡 등의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의 음악 페스티벌,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회에 참가했다. 또한 클리블랜드 음악원, 신시내티 음대에서 강의하고 클리블랜드와 콜럼버스 개인 피아노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천 동문은 “클래식 음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화된 교전음악으로 듣거나 연주하는 사람에게 정서 안정과 인성 개발에 도움준다. 어린 시절 클래식 연주는 좋은 훈련으로 개인적인 잠재력 개발과 더불어 상상력을 통한 파트너십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 찬양선교단 미 순회 공연

하늘 선물로 찬양의 화음 펼쳐

동문 음악인들 모임의 빼어난 화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서울대 찬양선교단(지도목사 최용성)’이 지난 달 중순부터 미국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초대 지도목사를 역임한 김인철 목사(오렌지 한인연합교회 담임)는 “음대 성악과 학생들이 구성된 서울대 찬양선교단이 7월 14일부터 남가주 한인 교회들을 돌며 연주회를 갖고 그 후 동부로 가서 순회공연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연주 일정은 지난 7월 ▶14일 남가주 동신교회 ▶15일 참평안교회 ▶16일 하나로 커뮤니티 ▶17일 조은교회 ▶18일 선한목자장로교회 ▶18일 오렌지한인연합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6일 뉴욕으로 가 ▶28일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찬양 예배와 ▶29일 은혜요양 양로원 찬양과 맨해튼 캠퍼스 미션 처치 찬양예배 등을 인도했다. 또 ▶30일 뉴저지 찬양교회,

▶31일 순복음 안디옥교회 ▶8월 1일 뉴저지 한소망교회와 안디옥교회·낙원장로교회 등에서 찬양예배를 담당했다.

이밖에 한인 양로병원을 방문해 성가로 위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교 찬양선교단 집회는 모교 성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연습한 합창과 중창, 독창, 율동찬양, 스킷 드라마 등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1시간~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순회공연의 목적은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찬양으로 위무할 뿐 아니라 교회들의 회복과 연합에 힘을 실어주고 이민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에도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음을 알려 조국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찬양선교단은 지난 1998년 97학번 성악과 크리스천 학생들로 구성된 그 해 여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찬양선교

를 시작했다.

또 99년 중국사역을 준비하면서 7명이던 단원이 30여명으로 급증하자 지도목사를 초빙, 매주 목요일 정기모임과 예배를 갖기 시작, 2000년도에는 서울대 동아리로 정식 가입했다.

1999년 이래 11회의 정기연주회를 펼쳤고, 매년 여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에서 해외 선교사역, 저술에는 농어촌 전도사역을 펼쳐 왔다. 한양대 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주요 활동이다.

자비함으로 활동하는 단원들은 사회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훈련을 꾸준히 받고 있다.

특이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 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외의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점. 이 때문에 해외공연 중 한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가곡마저 부르지 않는다.

현재는 최용성 목사와 김인혜 교수의 지도로 매주 정기예배와 리더 양육, 일대일 양육 등을 통해 신앙심을 쌓고 있다.

테너 이용훈 동문

할리웃 보울에서 ‘카르멘’ 주인공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크게 활약 중인 테너 이용훈 동문이 지난 1일 할리웃 보울 무대에서 구스타보 두다멜의 지휘로 오페라 ‘카르멘’의 주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 동문은 ‘카르멘’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인 군인 돈 호세 역을 맡아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들과 함께 정열적인 비제의 오페라를 공연한 것이다.

이 공연은 두다멜이 2010 시즌 할리웃 보울에서 LA 필하모닉을 지휘하는 3개 콘서트 중 첫 번째다. 이 동문은 그의 지휘 아래 나타샤 페트린스키(카르멘 역), 알렉시아 불가리두(미카엘라), 카일 케텔슨(에스카미요) 등과 함께 1만8천여 청중 앞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이 동문은 모교 음대와 뉴욕 매니스 음대를 폴 스칼라십으로 졸업했다.

그후 2004년부터 유명한 국제 성악콩쿠르를 휩

쓸면서 전 세계 오페라극장에서 주역가수로 꼽 받고 있다.

지난 3년 유럽과 미국 오페라 무대에서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테너다.

작년 6월 네덜란드 오페라의 현대판 ‘카르멘(로버트 카슨 연출)’에서 돈 호세 역을 맡아 각광을 받은 바 있다.

이 동문은 이번 무대를 거쳐 10월 시카고 리릭 오페라 프로덕션의 카르멘에서 또다시 돈 호세 역을 맡게 된다.

또한 다음 시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공연할 베르디의 ‘돈 카를로’에서도 주인공 공 돈 카를로 역을 노래한다.

2007년과 2008년에 ‘돈 카를로’와 ‘토스카’, ‘카르멘’의 주역으로 독일, 스페인, 남미 칠레, 이탈리아, 아테네, 영국 오페라 무대에 차례로 데뷔하며 유럽을 휩쓴 바 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만 테아트르 알라 스칼라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드레스덴 챔페르오페라의 ‘토스카’, 콜로뉴 오페라의 ‘일 트로바토레’, 로마 오페라의 ‘레나노 전투’에서 모두 주역을 맡아 공연한다. 이어 비엔나 오페라, 도이치 오페 베를린, 뉴욕 메트로폴리탄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백용 동문 부인과 공저 신서 출간

‘자녀 성격에 맞춘 양육법’

이백용 동문이 부인 송지혜씨와 함께 아이들의 성격에 따른 갈등 해결법 및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를 출간했다.

이백용 동문은 기업 컨설팅 업체 C&R 컨설팅 대표며 부인 송지혜씨는 한국 피아노교수법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동문 부부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은 외향형·내향형, 정리형·개방형, 현실형·이상형, 사고형·감정형으로 나누어지는 MBTI 성격 분류법에 따라 자녀의 성격을 파악하는 법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어 자녀와 성격 차를 이해하

는 법,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코칭법을 담고 있다.

또 가족의 생생한 경험담과 자녀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다른 가족들의 다양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동문은 모교 공대와 UCLA 대학원을 졸업하고 IT업체 바이트 시스템을 창업했으며 한국 코칭센터에서 전문 코치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부인 송지혜 소장은 연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UCLA 음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특 집

한일병합 100주년

한일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김일훈(의대 57년졸)

1910년 8월 22일은 우리 고국 3천리 금수강산을 일본에게 강탈당한 ‘한일병합’의 날이며,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다.

2010년 8월에 들어서면서 한일병합 100주년의 국치일(國恥日)을 맞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일본 한국계’의 역사학자, 언론인, 작가 등 대표적 지식인 200여명(*주 1)이 서명한 ‘한일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이라 약칭)가 지난 5월10일 서울과 도쿄에서 발표됐다.

<주 1. 참여한 한국지식인 109명은 고은, 이문열, 이어령, 황석영 등 문인들과 저명한 교수 등 지식층이다.

일본지식인 105명 가운데 노벨작가 오오에(大江健三郎)를 비롯한 유명작가와 교수 등 일본 최고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강상중(姜尙中) 동경대 교수를 비롯한 제일 한국계지식인 10명이 포함돼 있다.>

그들은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불의·부당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뼈대로 했으며, 동문들에게 본지에 게재된 ‘공동성명’의 일독을 권하는 바다.

한일병합에 관해 해방후 역대 일본정부 수반들은 대체로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중에서도 다음 4인의 수상담화가 대표적이다.

1. 무라야마(村山)수상 담화(1999년 8월15일. 종전 50년)
2. 오부치(小淵)수상담화(1998년 10월8일.한일공동선언)
3. 코이즈미(小泉)수상 담화(2005년 8월15일. 종전 60년)
4. 간(菅)수상 담화(2010년 8월10일. 한일병합 100년)

1~3의 담화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한 때 우리 일본은 잘못된 국제으로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에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한다.”

위에서 특히 무라야마(村山)수상은 진보세력 사회당 당수로 1995년(해방 50년) 사회당 내각수립에 성공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친한(親韓)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부 우파세력이 주도하는 한일병합 긍정론에 대항하는 여론을 이끄는 주도인물이었음을 알린다.

4는 본지 8월호가 마감될 직전에 나온 담화문으로, 특히 한

일 병합 100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5월10일의 ‘공동성명’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동시에 현재 일본정부의 국내성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시대 의문문화재’인 ‘조선왕실 의궤(儀軌)’를 한국에 인도할 방침을 표명했다.

한일합병 긍정론 비판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고종황제와 온 국민의 일치 반대에, 무력으로 성취시킨 한일병합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지각한 일본의 일부 우파학자와政客들은 “합병에 의해 한반도에 급속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주었다”, “미개국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자랑스런 업적이다” 등으로 한일병합의 성과를 옹호해 강조하고 있다.

사실인즉 일제 식민지배의 가혹성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 한민족을 일본황국신민으로 개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들 한일병합 긍정론 중 일부 관심사를 살펴본다.

A. 이조말기엔 자본주의 새싹이 존재치 않았다: 일본 우파는 자칭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뜻에서, 외국인인 하버드대 Carter Eckert교수의 견해를 인용, “이조시대엔 자본주의 근대화의 새 싹을 발견할 수 없다”는 부정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조말기 근대화 싹이 엄연히 존재했다”는 견해가 20세기 하반기의 일본

최고작가 사마(司馬遼太郎)의 저서와, 제일본 한국학자 강제연(姜在彦)교수의 책(조선의 개화사상)에 강조되고 있다.

B. 미개 한민족에겐 자립능력이 없었다: 여기서도 외국인 캠브리지 대학의 Crawford 국제법 교수의 다음과 같은 논설을 앞세우고 있다.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자립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 주변국가가 간여하는 일이 많았던 시기며, 따라서 당시 한일병합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측이 말하는 ‘강제적 병합은 불법’이란 주장은 일차대전(1914~1918)이후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Crawford설은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우리 선조를 모르고 지껄이는 망발이고, 현재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서는 한국인의 우수성은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터다.

C. 러시아에 합병가능했다: 만일 일본이 한일병합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정 러시아에 합병됐을 것이라며 “소련시대 소수민족의 과혹한 참상을 보면, 한국인에게 일본지배가 천만다행이었다”고 한다.

가정(假定)의 논리를 앞세워 역사를 논의하려는 역측이라 하겠다.

‘공동성명’에 적힌 듯이 “러일 전쟁은 일본의 우세승으로 끝나고,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게 했다.”

여기서 필자가 더 추가하자면,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인정한다는 1905년 러시아-일본의 강화조약은 미국령 포츠머스(Portsmouth)서 미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중재로 이

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 일본의 한국이권을 인정하게 된 데는 동양의 세력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식민지 필리핀과 일본의 한국점유를 서로 묵인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강대국 간의 제국주의적인 저의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결과 같은 해(1905년) 한국은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실질적인 일본식민지가 돼버렸고,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한국을 회생양으로 만든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첫째 우방인 미국의 옛 대통령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무시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D. 개화와 조선인들이 합병을 수용했다: “한일병합은 이조말기 정치단체 일진회(一進會) 등 조선의 많은 개화파인사들이 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의 친일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자본주의화 가능성을 비관했던 매국단체 일진회조차도 ‘일본제국에 흡수합병’이 아닌 ‘대등한 합병’을 주장했던 그들의 기대가 배반당했다고 원망했다.

끝으로 친일침략 결과 대대적인 의병운동과 3.1운동 등 항일투쟁으로 이어졌음은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는다.

김일훈 박사

한국 의료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의료평론가로 의료서적 6권과 역사문화서적 3권을 출판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서 출간해준 책 ‘미국의료 한국의료’는 개인에게 출판혜택을 준 것으로 의사협회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돼 있다.

한일병합 10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전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해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해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전령 행위, 명성왕후 살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란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근대 일본 국가는 1875년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듬해 일본측은 특사를 파견,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항시켰다. 1894년 조선에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나 청국군이 출병하자 일본은 대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장악했다. 그리

고 왕궁을 점령해 국왕, 왕후를 가두고 이어 청국 군을 공격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국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승전의 대가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되돌려 놓게 됐다. 이런 결과에 부딪혀, 일본은 그간 한국에서 확보한 지위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해 국왕에게 궁도감을 주고자 왕비 민씨를 살해했다.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를 구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후, 1903년 일본은 그 대신 한국 전토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다.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전쟁을 결심하고 1904년 전시(戰時)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규모 군대를 진입시켜 서울을 점령했다. 그 점령군의 압력하에 2월 23일 한국 보호국화의 제1보가 된 「의정서」의 조인을 강요했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우세승

으로 끝나고,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게 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곧바로 천황의 특사로 서울로 와서 일본군의 힘을 배경으로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1905년 11월 18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시켰다. 의병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이 협약은 강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친서를 각국 원수(元首)들에게 보냈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한 고종황제의 책임을 물어 퇴위를 강요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와 동시에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정」을 강요해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감독권도 장악했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일본은 군대, 헌병, 경찰의 힘으로 탄압하다가 1910년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게 됐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

일본국가의 「한국병합」 선언은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에 근거해 설명되고 있다. 이 조약의 전문(前文)에는 일본과 한국의 황제가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상호 행복과 동양 평화의 영구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해 병합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돼 있다. 그리고 제1조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고 기술하고, 제2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서술돼 있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적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일을 승낙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함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는 병합의 역사적 진실은,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해 일본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여 숨기고 있다.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끝에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된 한반도의 남쪽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를 수립했다. 이 때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으로 약칭)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한, 일 양국 정부간에 서로 달랐다.

일본정부는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것으로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해 유효했지만, 1948년의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병합의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없는 인식에 입각해 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9페이지에 계속>

특 집

8.15 65주년과 김일훈 박사의 '8.15'



지난 1980년대 아내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상징물인 원폭 사망자 위령비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65년 전 8월

히로시마 원폭과 종전

김일훈(의대 57년 졸)

65년 전의 8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숨가쁜 달이기도 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정국에 8월 6일의 히로시마, 8월 9일의 나가사키 원폭투하, 8월 8일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리고 8월 15일의 종전으로 이어지는 달이다.

나는 1980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을 기회가 있어 그곳 평화기념 자료관에 들러 자료 및 해설문을 유심히 보는 가운데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내용인즉 10만명이 넘는 그곳 주민들 죽음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간악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탓이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직 '미국의 무모한 공격', '인류사상 유례없는 비인도적인 대량학살', '비전투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야만적 처사',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 등 시종일관 가해자만 비난하는 선전문을 나열해 놓았으니 이렇듯 대량파괴의 참상과 선전문(해설)을 보고 2차대전의 예비 지식이 없는 자나 젊은층이 관람한다면 미국만이 악마요, 일본은 선한 피해자인 셈이다.

과연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할단 말인가? 역사를 아는 사람이면 사실은 이와 정

반대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도 하다.

전쟁 말기 일본의 철저한 패전에 불구하고 본토 최후항쟁을 선언한 바 있는 그들을 패망케 하는 일은 만일에 원자탄이 없었더라면 수백만명의 일본 국민과 수십만명 연합군의 희생이 불가피했을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가령 원자탄 투하 이전에 있는 일로, 조그만 섬 '오키나와'를 탈취하는데도 미군 4만 8천명과 일본군 11만, 일본주민 10만명의 사망자를 내게 했으며 1945년 3월 9일 하룻밤 사이에 있는 동경폭격으로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으니 이러한 숫자만도 원자탄 피해자(히로시마 14만, 나가사키 8만)를 훨씬 웃돈다는 사실이다.

원자탄 투하일이 8월 6일과 9일인데 이보다 11일 앞선 7월 26일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을 일본에 통보해 그들의 즉각적인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으며 일본섬의 주권인정과 전후 일본 민주주의 회복을 성취시키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때는 미군의 일본본토 상륙이 임박했을 즈음이었으며 일본의 해군과 공군은 거의 전멸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일본정부 특히 군부에서는 항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원로들과 도교의상 등 일부 정객들이 당시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던 소련을 통해 교섭하려 했던 '조건부 항복계획'이 있었다지만, 군부의 방해로 휴전교섭 착수도 하지 못한 현실이었다.

나의 8.15
'아이 엠 코리안'

13세때 8.15 해방을 중국동북부(만주)의 아름다운 도시 길림에서 맞은 나는 소련군이 그곳에 진주함에 따라 아이엠 '코리안' 이라고 러시아말로 쓴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소련군 점령하의 일본군인과 성인 남자들은 모두 시베리아로 압송되고 나머지 일본인은 집단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다.

내가 살던 길림은 보수적인 도시라 인심이 좋은 곳인데도 중국 깡패들이 소련군을 앞세워 일본인 약탈과 부녀자 강간이 빈번했으며 치안이란 것도 없는 무법천지였으니, 이것이 바로 야만적인 소련해방군 점령지역의 사회상이었다.

이때 우리는 '아이엠 코리안'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으니, 우리동포의 용모나 옷차림이 일본인과 비슷한지라 중국인과 러시아군인들의 적대시를 피하려는 조치기도 했다.

그런데 2차대전 중 재미한국동포들도 '아이엠 코리안'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으니, 내가 중국서 겪은 일과 흡사한지라 놀라운 일이다.

2차대전 중 미국에 있는 일본인혈통의 후손들은 근 8할이 미국출생시민이지만, 적성국가인(enemy alien)으로 인정돼 수용소 생활을 강요당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미국이민으로 말하자면 구한 말(1903년)의 하와이 이민을 효시로 1910년 한일합병될 때까지 약 7천명이 이민왔으며, 그후 소위 사진결혼으로 일본여권을 가지고 하와이 동포에 시집간 한국여자가 1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미국 동포사회는 특히 교회가 독립운동의 온상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태평양전쟁이 나던 날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한인회에서는 대 일본전쟁을 적극지원키로 결의했었다. 그런데도 1940년 제정된 미국이민법은 한국인을 일본국민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2차대전 중 우리동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에 한인교회와 한인회, 그리고 한인연기관이 들고

일어나 한국동포를 일본인이 아닌 '코리안'으로 재분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기껏 허용 받은 일이 'I am Korean'이란 배지를 공적으로 착용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차질에도 불구하고 재미동포가 대 일본전쟁에 헌신적으로 협조한 결과 미국사회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8.15 후 미국 아닌 중국에서 나도 가슴에 '아이엠 코리안'이라는 러시아말(카레이스키)명찰을 달고 다녔으니 감회가 새롭다. 그 때부터 6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내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3개 국적(일본-한국-미국)을 가진 셈이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국적기간이 단연코 가장 길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아이엠 코리안'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듯 착각할 때가 많다. 그 동안 영어로 발음하며, 또 7손자들 모두가 '만 노랑머리'지만 나는 실감나게 내가 미국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어디까지나 '아이엠 코리안'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즉각 수락하지 않고 원자탄 투하 이후에 수락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원자탄 세력의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겐 훗날의 조선반도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한 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히로시마 원폭투하 2일 후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함으로써 조선 반도에 38선을 가져오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됐던 것이다.

이것은 한낱 타상공론이기는 하지만 만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즉시 수락했다더라면 그들은 원자탄 세력도 모면했을테고, 우리의 6.25와 남북분단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다.

동경대 와다(和田)교수는 "만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즉시 수락했다더라면 원폭투하나 소련 참전도 없었고 조선분할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분단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논설을 쓴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원폭투하와 관

결고 사죄하는 독일 지도자에 비해 일본인은 너무나 얄팍속속이다.

오래 전 원폭도시 나가사키의 시장은 "천황이 전쟁 책임자"라고 말했다가 총맞은 일이 기억에 새록데, 그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위로하는 가운데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인이 한국에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大江)씨는 종전 50년을 맞아 '일본의 자세'에 대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바 있는데(1995년 7월) 그의 글 가운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몰락시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투하를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암시를 했으며 "일본과 일본국민 모두가 제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말이 일본 국민을 대변할 때 일본은 평화 애호 국가가 될 것이다.

< 8페이지에서 계속 >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도 완만하나마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은 전진해왔다. 새로운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 고노(河野) 관방장관 담화(1993),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1995), 한일공동선언(1998), 조일(朝日) 평양선언(200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담화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파괴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또한 무라야마 수상은 1995년 10월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병합조약」에 관해 「쌍방의 입장이 평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하고 노사카(野坂)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조약은...극히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무라야마 수상은 11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병합조약과 이에 앞선 한일 간의 협약들에 대해 「민족의 자결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마련된 토대가, 그 후에 여러 가지의 시련과 검증 거쳐면서, 지금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병합과 병합조약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회도 하와이 병합의 전제가 된 하와이 왕국 전복의 행위를 100년째

해당하는 1993년 「불법한(illegal) 행위」였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근년에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와 「식민지 범죄」에 관해 국제법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도 새로운 정의감의 바람을 받아들여 침략과 병합,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병합」100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진다. 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입각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역사에서 유래하는 많은 문제들을 바꾸어 공통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한층 더 자각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공통의 역사인식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과거 100년 이상에 걸친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자료는 숨김없이 공개돼야 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의 시기에 기록문서 작성을 독점한 일본정부 당국은 역사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죄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고, 용서는 배풀어져야 한다. 고통은 치유돼야 하고, 손해는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관동대지진 중 일어난 한국인 주민의 대량 살해를 비롯한 모든 무도한 행위는 거듭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정부가 조처

를 취하기 시작한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 및 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대립하는 문제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응시하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도 이 병합 100년이라는 해에 진전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우호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취지를 한국,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엄숙히 받아들여주시기를 호소한다.

특별대담

박세일·최장집 교수



“중도에 길을 묻는다!”

보수·진보 진영의 담대 논객이자 최고 이론가로 평가되는 동문 박세일(사진 왼쪽)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최근 한국일보 주관으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중도를 논했다. 미주 동문들을 위해 이 내용을 동향회보에 전재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논객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이념적,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벗어던지고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중도의 영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 진정한 중도는 상대진영의 장점을 채용하는 열린 자세로부터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념갈등이 치열합니다. 천안함 사건을 보더라도 보수·진보 진영간 간극이 넓고 깊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장집 교수는 해방 이후 민족문제를 둘러싼 좌우 갈등이 냉전과 결합하면서 분단국가로 고착된 것이 치열한 이념갈등을 잉태했다고 봅니다. 억지로 분단국가가 형성된 이후 초기 국가건설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1960~70년대 산업화가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민주화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기본 골격과 구조가 보수세력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이 형성되고 기독교 보수세력에 대항하면서 양자 간 갈등이 정치영역의 표면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보수·진보 진영의 형성이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후 성립되거나 제도 안의 대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착했다면 양 진영간 갈등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족문제가 민주화 과정과 연결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우리 사회 이념갈등은 네 가지 요인이 결합돼 있습니다. 첫째는 일제와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한(恨)이나 역

사적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상황이고 북한이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로 우리 사회를 끌어온 보수세력들이 이런 역사 속 한에 대한 치유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좌우 대립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이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보수 진보 모두 정치인들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지식인과 언론들도 정파적으로 행동하면서 새로운 이념가치나

“복지를 무시하는 보수, 성장을 외면하는 진보는 시대에 뒤떨어져” “수사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마땅”

사회통합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최장집 교수는 해방 이후 60년간 한국사회는 분단,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화 등 서구사회가 몇 세대에 걸쳐 경험할 변화를 너무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박 이사장 말씀대로 치유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김호기 교수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보수나 진보 모두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는 보수적 정책을 차용하는 이념의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답이 많을 수 없으며 좌우 모두 한 곳에 수렴된다고 봅니다. 좌우 정당 간 정책토론을 진지하게 하면 70~80%는 같은 정책을 택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30%는 건강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분배나 복지

를 무시하는 보수가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발전을 외면하는 진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다 필요하고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국가 경제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상대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만이 이같은 수렴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김호기 교수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영·미·일은 중도진보 경향으로, 유럽은 중도보수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장집 교수는 사회주의 붕괴 후 전세계에 체제적 대안은 사라졌고, 사회갈등의 이념적 범위도 좁혀졌습니다. 유럽이 대표적이지만 과거 좌파나 우파, 사회주의적 세력이나 시장경제자유주의세력이나 모두 공생의 합리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유럽은 좌파 우파 체제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친노동적이거나 친시장적인 강조점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블레어의 노동당은 이전 대치의 보수당 정책을 계승했고, 현재 캐머런 보수당 연립정부는 블레어의 노동당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다소 차이를 보이던 영미식 시장주의 모델과 유럽식 복지모델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유럽은 그리스 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

이 이승만 정부가 독재로 흐르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분단국가지만 독일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 열고 경쟁을 허용하자 결국 사회 민주주의라는 중도 정권으로 수렴되면서 이념 갈등을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제도권으로 수렴했습니다. 전후 패전국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념적 스펙트럼의 허용 폭을 보다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좌우의 이원화된 대립구도를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합리적 논의와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치인과 지식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김호기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중도적 가치나 정책들이 제대로 부상한 것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 문민정부 시절의 대표적 중도 정책은 금융 실명제, 하나회 체결 등을 꼽을 수 있고, 진보성향의 국민의 정부 시절 노사정 위원회 출범이나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등을 중도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 이사장께서 문민정부 개혁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이런 개혁작업을 중도세력의 정치적 실험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박세일 이사장은 우선 중도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비학문적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좌파 반 대한민국과 사이에 중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법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또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을 규탄하고 증오하는 남한 내부 체제단속에만 매달리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호전성을 불러일으키는 체제위협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도 민족정서와 이념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통일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달리 표현하자면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는 유화, 보수는 강경이라는 일차적 접근에 매달려 있을 뿐 양자 모두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 진영 모두 남북문제를 남한내부의 정파적 이해로만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김호기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정부의 정책을 돌아보면 최 교수께서 창안한 민주적 시장경제론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정책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또 박 이사장께서 일관되게 주장해오신 선진화론은 이명박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장집 명예교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구호와 실제 정책의 내용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큼니다. 인지적 불일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보통 참여정부라고 하면 좌파, 진보적 정부로 구분하는데 이념과 구호를 떠나 그런 차별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는 제가 과거 ‘정서적 급진주의’란 표현으로 설명한 바도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성장중심 정책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 등 이전 정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좌파라 불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현재 우리사회의 세별위주 구조가 정착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는 상대적 차이를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 변화를 조사해 보면 그 차이도 미미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은 사회 최상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중도를 구호로 내건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별 차이도 없으면서 보수와 진보는 정치영역에서 특히 남북문제를 둘러싸고는 사생결단을 하듯 대립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오히려 역으로 보수정부는 진보정부는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차별성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에 계속>

함해 중도를 추구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방 이후 좌우합작이 대부분 실패한 것도 북한에 대해 비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는 좌파 우,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중도적 노력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파 정부는 좌파 정부는 정치는 항상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일 때 성공합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이룬지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 이념은 여전히 양극화했고 갈등도 격해진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중도세력은 여전히 위축돼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참여했을 때 저는 보수측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개혁적 보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의정부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한 것도 인정합니다.

▶최장집 교수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보수진영 역시 비현실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태를 놓고 가장 안타깝게

국사회를 보면 보수의 성장지상주의가 일방적으로 우세해 복지와 분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보수는 복지의 가치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는 단순히 시장경제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에 머물지 말고 실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호기 교수는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이 시도된 이후 한국사회의 중도세력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여운형, 김구식 선생의 좌우합작 추진이 냉전상황에서 실현되지는 못했고 이후 조봉암 선생의 중도노선이 좌절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90년대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도 크게 보면 중도보수, 중도진보 정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까지 중도세력의 흐름을 평가해 주십시오.

▶최장집 교수는 한마디로 중도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냉전이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양자선택을 강요하면서 중도세력의 존립기반 찾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또 중도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

특별기고

칼럼



이홍구

전 국무총리, 주미 대사

100년 전 일본에 나라를 강탈 당했던 것도 8월이요, 35년 후 일제의 굴레에서 해방된 날도 8월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집단적인 굴욕감과 벽간 감격을 동시에 되새겨 볼 수 있는 8월로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족 통일이란 풀리지 않는 숙제에 묶인 채 그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인 한국 사회의 분열증과 파편화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은 지역·계층·세대·정당 등 여러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대결의 원인이라면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심화된 이념의 분열을 꼽아야 할 것이다.

8월에 돌아보는 이념 분열 100년

근자에 탈(脫)이념을 내세우며 실용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전통의 궁극적 원인을 덮어 버리려는 우(愚)를 범할 뿐이다.

인간은 국가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찾게 되며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그 규범적 기준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이념의 범칙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수천 년 지켜온 민족의 독립과 518년을 유지한 조선왕조의 주권을 한꺼번에 상실한 충격 속에서 추진된 독립운동은 폐쇄성을 탈피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각성과 더불어 '어떤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작업이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정치이념의 선택인 동시에 새 정치체제의 모델을 찾는 일이었다.

프린스턴대 출신의 이승만 박사가 1919년 3·1운동에 이어 상하이에서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독립운동의 주류가 선택한 새 나라의 이념과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서구 민주국가들이 바로 그 이념이며 모델이었다.

한편 1917년 레닌이 주도해 제정러시아 체제를 단순히 붕괴시킨 볼셰비키혁명이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념과 체제의 모델로 등장했다.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과 독재를 주창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산당 독재체제를 구축한 소비에트연방이 새로운 모델로 민주국가 모델과 대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립운동기의 두 흐름의 대결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서 냉전의 주역이 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진주하게 되면서 남북 두 체제와 이념의 대결 구도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해방 정국의 혼란으로부터 6·25전쟁을 거쳐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이 겪어온 우여곡절은 험사리 정리하기 어려운 역사의 대하드라마였다. 다만 그 결과는, 특히 남과 북이 도달한 오늘의 실상은 선명하게 그들의 상대적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

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은 차지하고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들의 변화 과정과 견줘 봐도 완벽한 유일 예외 체제로 남아 정치적 경직화는 물론 경제적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독립운동기에 꿈꾸던 새 나라의 이념과 체제는 실종되고 왕조적 권력 구조와 군국주의적 통제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위협 수위에 매어 놓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북한 체제와 이념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분열의 저변에 아직도 남북 대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과거사 속에서의 언행과 인연들에 얽매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속성과 지(知)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은 지성의 저속 운행이 역사 진전의 빠른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적 경직성의 한계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수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과 민족사회의 기본 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다면 북한 동포의 가장 기본적인, 즉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보수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공동체 규범의 실천 사례는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보의 경우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국제적 진보 진영의 보편적 원칙을 외면하는 당혹스러운 환경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인권옹호·반독재·반핵이란 원칙을 확고히 천명해야 분배의 정의를 비롯한 진보적 목표에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특히 교조화된 신념 안에 갇혀 있는 이념론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젊은 세대들에게나마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이념과 정치체제의 모델을 넓은 지구촌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기 기대해 본다.

이홍구(李洪九) 전 국무총리 1934년 출생.경기도 졸업, 서울대 법대 재학중 미 에모리대 유학, 정치학 전공,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모리대 교수 재직 중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부임. 1988년 국토통일원 장관, 1991년 주영국 대사, 1994년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1998년 김대중정부 시절 주미국 대사를 지냈다.

<10 페이지에서 계속>

▶박세일 이사장= 참여정부는 반체제파, 합리적 진보그룹, 보수적 관료그룹 세 그룹이 혼재하는 구조였습니다. 세 그룹의 역학관계 변화에 의해 정책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구호도 최 교수의 지적대로 일단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든 정부는 그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친서민'은 어느 정부에게나 당연한 의무며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실용은 목적가치가 아니라 수단 가치일 뿐입니다. 실용은 좌우 모두에게 필수적 덕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도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중도, 한국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구체적 중도의 실천목표를 정하는 게 시급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직후 지난 5년, 혹은 10년간의 정부에 대한 반

성과 성찰 작업을 했어야 했지만 그것이 없어 다음 단계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호기 교수= 중도의 바람직한 가치, 비전, 전략, 정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최장집 교수= 우선 기계적으로 중도를 설정하기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며 정치의 장에서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수진영은 과거 보수적 정책에 대한 반성과 박 교수의 용어를 빌리자면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비전을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진보는 진보대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실적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진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논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인다면 결국 보수와 진보의 구체적 정책은 상당히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 진영의 수사적·이념적 대립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 이사장의 창조적 세계화론은 중도적 정책수렴의 중요한 모델을 보여

줬습니다. 내가 보기엔 박 이사장의 사회 경제적 비전은 중도이고 민족문제는 보수라는 측면에서 보통 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듯 한데 정책면에서는 여러 진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지나치게 극소수 재벌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편향돼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또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 다수의 삶의 질 향상이 상대적으로 뒤처졌습니다. 결국 재벌중심의 성장정책과 노동자가 배제된 노동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보진영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일 이사장= 두 가지 중도가 있습니다. 첫째 중도는 대도(大道) 혹은 공도(公道)로서의 중도며 진정한 중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가 사심 없이 공동체를 중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좌우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말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가 우파로 기울어질 때는 좌파를 지원하고, 좌파로 기울어질 때는 우파를 지원해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반면 편의주의적, 보신주의적 중도도 있습니다. 중도라는 미명하에 시류에 맞춰 개인의 보신과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이며 패권해야 할 자세입니다. 결국 대도로서의 중도의 가치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과거 현재 미래

의 조화, 민족과 세계의 조화,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호기 교수= 언론에서 중도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최장집 교수= 언론에서 중도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부터가 중도가 아닌 언론이 지배적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는 일부 언론들이 냉전시기에 형성된 교조적 이데올로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열정을 동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언론이 나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론지들은 모두 중도입니다. 자극적 선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중도적 보도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일 이사장= 언론이 중도의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언론에서 중도란 첫째가 정파적 가치보다는 국가 전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과 상업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가 너무 좌파로 기울어지면 우의 가치 강조하고, 우로 기울면 좌의 가치를 옹호하는 균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발전단계와 안팎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옛사람들은 시중(時中)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항상 기존의 가치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에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여론은 여론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단계로 여파,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장집 교수= 최근 보수는 진보는 극단적 의견을 주로 대변하는데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여론 여파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정체되지 않은 비이성적 의견들이 그대로 신문에 반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당원의 정치적 의견을 정제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듯 언론도 갈등적, 투쟁적 언 어들을 정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세일 이사장= 하나 더 지적하자면 최근 언론들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인물의 동정이나 음모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치 자체도 가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같은 경마중계식 보도를 지양하고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나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박세일 교수

1948년 서울 출생. 1970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75-80년 미 Cornell대 대학원 졸업(법경제학 박사). 85-94년 서울대 법대 교수. 94-98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 수석. 98-99년 미 Brookings 연구소 초빙연구원. 00년~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06년~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장집 교수

1943년 감동 출생. 고려대 정치학과 졸업,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미 사회과학협의회 한국분과위원. 워싱턴주립대 잭슨 국제관계대학 초빙교수. 한국 정치연구회장. 미 버클리대 초빙교수. 동경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미 코넬대 정치학과 초빙교수. 고려대 정의과 명예교수.

논 단

수필

여름 나그네



정석화(69 대학원졸)
유타대 교수(건축학)

오스테크는 한국출신 입양인이었다. 내 수학과목에 등록은 했지만 처음부터 발생을 부렸고 중간시험에 패했지만 제출했다고 우기는 등 잔치가 엄청난 아가씨였다.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지만 자기 본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도 B 학점을 받았고 난 학기가 끝나는 다음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도착하자마자 가수 백설회를 애도하는 기사들이 언론에 연속 게재돼 그제서야 어릴때 시골에서 들던 노래들이 백설회가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분홍 치마’와 ‘고향초’가 듣고 싶어 종로 4가 상점을 4시간이나 헤매던 일을 뒤로 하고 북경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시간 1시간 반, 고도 3만 6천피트. 이 정도면 세스나 182로도 날 수 있는 거리다.

대만 출신 중국 고대사 학자는 중국어가 원래는 우리 발음과 비슷했는데 터키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과 같이 발음하게 됐다고 한다. ‘북경’ 아닌 ‘베이징’ 공대에서 2시간 정도 ‘수직축 풍력기 설계’에 관한 특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중국의 대학들은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체호텔과 식당도 여러개 있다. 북경에 갈 때마다 3시간 거리의 만리장성을 가 본다.

중국은 마모된 고전건물이나 벽돌구조물을 주저없이 새 세

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장성의 어떤 곳은 유타의 산보다 가파른 슬로프가 있어 병사들이 뛰어가려면 무척 고됐으리라 생각된다. 그 만리장성 위에서 켜던 모택동의 시가 생각난다.

‘沁園春·雪北國風光 千里冰封 萬里雪飄 望長城內外 惟餘莽莽；大河上下，頓失滔滔’

시 끝 부분에 모택동은 정기스칸을 하나의 활자로 낮게 평가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아마도 모 주석이 중국을 통일하지도 못했고 일개 공산당 지도자로서 투쟁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자기나라 중국을 지배한 반감 때문이었는지는 자신만이 알 일이다.

상하이행 기차를 타려고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하니 살인적인 속도로 요리조리 빠져 나갔지만 그 차는 놓치고 다음 차를 탔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는 한국의 KTX와 비교되는 속도로 11시간 거리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언덕 하나 볼 수 없는 광활한 토지가 전부 밭이었다. 시카고에서 네브라스카 사이의 대 평원과 어쩌면 그리도 비슷한지 착각할 정도였다.

차창을 내다보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도 거대한 자원을 가진 대국 옆에서 살아났는지 참으로 기록하다고 생각됐다. 다시 생각은 중국의 역사로 되돌아갔다.

그 대만 출신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상 제대로 독립적인 중앙정권이 없었다고 한다.

터키족에게 300년, 몽고족에 200년, 만주족에 또 200년, 그리고 중국은 일제지급과 같이 넓은 영토로 통일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모택동이 오늘 의 영토로 이룩했다고 한다.

조선족이 중국을 지배할 기회가 있었다. 조선족은 만주에서 가장 수가 많았고 동일성을 가진 확고한 종족이었다.

고려 말 몽고가 지배하던 원나라가 망할 즈음 고려에서는 이성계를 보냈으나 이성계는 위하도에서 회군해 상관인 최영을 제거하고 왕이 됐다.

만일 이성계가 큰 야심으로

최영과 같이 중국을 쳤더라면 조선족이 이렇게 큰 대륙을 지배할 유일한 기회였을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이성계 인품이 그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됐다. 그후 조선족 보다 훨씬 열세인 만주의 한 종족이 중국을 통일해 청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기차가 상하이에 가까워지니 산은 전혀 없는데 눈 지대기도 끝없이 펼쳐진다. 상하이의 도심지대는 얼마 전 다녀온 맨큐버를 연상시키고 피곤한 내뿜은 잠깐 동안 맨큐버 거리를 다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 곳 자오통(교통) 대학은 공학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평가가 있는 학교다. 북경공대나 교통대학의 두뇌들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우수 했다.

입학 전형에서는 중국의 각 성에서 최고의 두뇌들을 고루 모집한다고 한다. 그 두뇌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가 충만함을 실감했다.

특강이 끝나고 교수와 학생들이 교내 식당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었는데 중국음식을 잘 몰라 “이 음식은 ‘만다린’, ‘칸토니즈’ 어느 것에 가깝느냐”는 내 물음에 “이것은 상하이 음식”이라는 단호한 대답을 들어 새삼 나의 무지를 사소한 적이 있다.

만찬도중 ‘왕’ 교수가 옆에서 자오통 대학 자랑 중 “중국의 전 지도자 장쩌민도 이 학교 출신인데 지금은 캠퍼스 바로 옆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내려와 특강도 하곤 한다”면서 왜 한국의 전 대통령이 자살 했는지 물었다.

중국은 희망의 나라다. 거대한 영토와 지하 지상자원 및 인구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도자들은 모택동과 동소평을 제외한 ‘장쩌민’ ‘후진타오’ 다음 지도자 ‘원자바오’ 모두가 엔지니어들이다.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방식은 유연한 직업 정치인과는 전혀 다르다.

후진타오 주석은 명문 ‘칭화대학’ 토목과 출신이면서 일찌기 공산당에 들어가 어렵고 곳 은 일만 맡아 왔다고 한다. 가

장 가난하고 개발이 안된 성의 성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날부터 한국의 인간 상륙수처럼 계몽운동을 시작하고 학교 건물들을 직접 설계해 시공까지 막노동으로 마쳤다고 했다. 겸손과 근면으로 단련된 칭화대 두뇌는 동소평과 장쩌민의 인정을 받아 결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한다.

일찌기 우리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치던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인사가 지도자인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 비교되는 상하이 금융가 뿔 골목에서 옛날 만주에서 활약하던 대한의 주먹 ‘시라소니’가 중국 최고의 마피아 조직 두목을 박치기로 쓰러트렸다는 야사가 있는 골목을 돌아봤다.

장개석과 모택동이 서로 싸울 때 모택동은 소련 공산당 혁명 때 방식으로 조그만 마을청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설득해 하나씩 공산화시킨 반면 장개석 군대는 부패와 부정으로 이끌어 갔고 공산화돼 가는 마을 도시에 상하이 조폭을 이용해 막으려 했다 한다.

장개석의 호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으나 부정부패 장개석 정부와는 단절할 결심을 하고 만주에 있던 시라소니를 급히 불러 마련한 중국의 최고 주먹 조폭두목과 결투한 뒷골목이라 한다.

지금의 상하이는 그때의 상하이가 아니고 세계적 초고속 건물들이 뉴욕이나 시카고 못지않게 밀집한 세계경제의 중심지다. 상하이 주식과 펀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거리다.

시내에서 푸둥공항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는 기존의 레일이 아니고 전차기를 이용하는 부력 장치였다. 속도를 줄이면 다시 레일에 바뀌가 달는 약간의 충격을 느낀다.

인천행 비행시간은 베이징과 같은 1시간 20분 거리. 인천을 중심으로 도쿄 베이징 상하이가 모두 같은 거리에 있어 허브라고 하지만 교통량으로 따지면 또 달라진다.

청량리 역에서 춘천행 기차를 타고 강촌에서 내렸다. 그 역

에서 어설픔게 용접한 회전계단을 내려가면 커피숍이 있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 잠깐 들렀을 때 조용필의 ‘그 겨울 찻집’을 노래하던 가수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부인은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 스키장은 눈을 처음보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만든 것인지 잠이 오는 슬로프다.

해마다 가는 막국수 집은 변함 없었으나 더 붐비는 것 같았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유타의 친구들이 캠퍼스다기에 험한 산길을 3시간 올라가 저녁을 해 먹고 자리에 누웠다.

텐트 없이 나무에 가려진 별들을 쳐다 보며 이야기에 꽃을 피웠던 그 날 밤도 이제는 지난 이야기가 됐다.

그 많은 별 속에는 생뚱췌베리가 생전에 그리던 꿈의 별 어린 왕자의 고향별도 있다는 내 괴변을 들어주는 친구는 몇이나 될런지...

여행동안 못했던 스케이트도 시작해야 한다. 2002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솔트레이크 시티의 오벌 스케이트링크에 가보니 ‘샤니 데이비스’를 비롯한 스케이트 친구들은 벌써 다음에 있을 ‘소치 올림픽’을 목표로 훈련을 시작했으나 ‘아폴로 오노’는 미 역사상 최대 메달수상자가 돼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지난 3 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Clear for Take Off’를 듣는 순간 엔진 파워를 최고로 올려 이륙한다. 이륙 후에도 속도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활주로 표면 위에서 한참 날다가 이륙속도가 훨씬 넘은 후 전투기처럼 치켜 오른다.

신비의 도시 에리조나의 세도나 활주로는 불쑥 솟은 지형 위에 있어 이륙이 쉽다. 그곳에서 타보는 추억의 복엽기 ‘와코’를 타러 또 가야지.

시카고 서쪽의 이름없는 풀밭 활주로는 착륙하면 풀 향기가 비행기 각 꺾에 가득하던 그 활주로, 아직 그대로 있는지 한번 다시 착륙해보고 싶다.

아, 하늘아...푸른 하늘아...

2010년도 장학생 선발 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에서는 2010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대상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 8명 이하(장학금 각 \$ 2,000 내지 \$ 5,000)

구비서류 : 신청서(Website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성적증명서, 자필 소개서, 추천서 2통

응모기간 : 2010년 9월 10일 까지

발표및 수여 : 2010년 10월 15일 개별 통보

2010년 11월 13일 Annual Ball에서 수여

접수및 문의 : SNUCMAA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Y. 11358 / Tel (718)888-2622 / Fax (718) 888-2608

www.snucmaa.us snucmaa@yahoo.com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 장학위원장 서인석

논단

오피니언·소식·시

The Triumphant Decline of the WASP

Noah Feldman
하버드대 법대 교수

5년 전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백인 프로테스탄트(White Protestant 백인 신교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이 인준됨으로써 연방대법원에서 백인 프로테스탄트는 한 사람도 없게 되고 6명의 가톨릭과 3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됐다.

이것은 대법원 판사 지명에서 종교의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른바 '가톨릭 자리'를 특별 할당했던 시대가 있었고, 뉴욕 타임즈 발행인을 비롯한 지명한 유대인들이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펠릭스 프랭크퍼터(Felix Frankfurter)를 판사로 지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시절이 있었다.

유대인 판사가 너무 많아지면 반유대주의가 가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엘리트들은 연방대법원을 비롯해 교육기관, 정부기구 등 미국의 기간 골격을 세웠고 그것을 지배해왔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그 역사를 지배해 온 인종과 민족과 종교 그룹이 자신들이 누려온 사회경제적 권력을 자발적으로 다른 그룹에게 넘겨 준 전례가 없다.

하지만 백인 프로테스탄트는 그들이 향유해 온 권력을 양도했다. 그들은 능력과 포용의 가치관으로 양도했고, 이 가치관이 오늘의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인종이나 종교 그룹이 그러하듯 백인 프로테스탄트도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다.

뉴잉글랜드 자작농 후손들과 미드웨스트의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잔디 재배자(sod farmer)들을 한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밀라노 사람(Milanese)과 시실리안(Sicilians)을 혼동하고, 쿠바 하바나(Havana) 의사의 손자 손녀

들과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 빈농의 후손들을 구별 못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백인 엘리트는 영국이나 스코트-아일랜드(Scots-Irish)의 후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선조들은 17세기와 18세기에 미국에 왔다.

이들의 선조들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헌법을 기초했고, 인간의 절대적 권리와 정종분리(政宗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원칙이 포함된 신교도 헌법의 뿌리를 심었다.

물론 백인 엘리트들이 그들의 권력을 쉽게 양도한 것은 아니었다.

아일랜드나 남부 유럽 가톨릭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이들은 교황의 맹목적인 추종자들이라고 매도되면서 백인 신교도들로부터 집단적인 차별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그리고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완강한 장벽이었다.

신교도로 20세기 초 위대한 하버드대 총장으로 잡히는 애벗 로렌스 로웰(Abbott Lawrence Lowell)은 유대인들의 하버드대 입학 제한하기 위해 공식적인 쿼터를 설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교도 엘리트들은 노예의 역사와 인종차별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능력 중심의 포용주의는 발판을 마련했고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남부 프로테스탄트(Southern Protestant)의 오랜 본거지였던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차별과 배타성의 상징이었다.

헤밍웨이가 그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에서 유대인이었던 로버트 코른(Robert Cohn)을 "프린스턴의 미들웨이트 복싱 챔피언(the middleweight boxing champion of Princeton)"이라고 묘사했을 때, 이것은 고립되고, 불안정하고 싸움 잘하는 특성의 상징이었다.

1958년 말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더러운 싸움꾼(dirty bicker)'으로 인식됐고, 유대인은 프린스턴의 식당 클럽에

서 제외됐으며, 프린스턴은 남성 프로테스탄트 특권의 요새처럼 보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프린스턴은 팔목할만한 변화를 선택했고, 마침내 대학의 문호를 도시의 소수민족과 여성들에게 개방했다.

이제 그 때의 결정이 열매를 맺었다.

놀랍게도, 최근에 지명된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소니아 소토마이어(Sonia Sotomayor),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 모두가 프린스턴 출신자들이다.

이들 지명자들은 3명의 프로테스탄트 전임자들 자리를 메웠고 연방대법원의 인구 균형을 바꾸어 버렸다.

예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의 기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 것일까?

이 대답은 귀족제도를 금지시킨 헌법 정신에서 중점적으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은 귀족의 작위를 허용치 않고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성공을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프로테스탄트 엘리트들은 같은 백인 프로테스탄트로 가문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

엘리트 서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중요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엘리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의 최고 대학들을 개방한 것이 미국의 엘리트 분포를 변화시키는 지대한 영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요소는 공정한 경기 정신이었다.

이 정신은 영국의 공립학교 이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계급의 구별이 있었던 모국 보다 미국에서 더 널리 실현됐다.

이와 함께, 평등 사상에 대한 신념은 성공한 모든 그룹들이 가끔씩 빠져드는 배타적인 특권의식에 대한 충동을 제거했다.

외부에게 개방하는 것을 거부해 왔던 예외적인 소수의 클럽이나 대학들이 장벽을 허무는데 더욱 광범위하게 공헌했다. 이것은 엘리트 그룹이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외부 사람을 영입시킨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이상을 행동으로 추진시켜 온 포용 정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러한 포용의 시대가 프로테스탄트 엘리트 클래스의 독특하고 배타적 패션(anti-fashion 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도 모른다)의 보급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프렙(prepp)'으로 불리는 스타일은 원래 '아이비 리그(Ivy League)'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대인과 이민자들에 의해 공급됐다(아이비 패션을 보급했던 J. Press의 상징 글자인 'J'는 Jacobi를 뜻하



모교 소식

“안방에서 모교 강의 수강하세요”

평생교육원서 SNUi 서비스 개시

모교는 지난 5월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208호에서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 날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온라인 지식 나눔(SNUi)'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원식에는 당시 이장부 총장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양호환 원장, SNUi 사업추진위원회 안국정(본부 논설위원)·조동성 공동위원장, 모교 기술지주회사 노정의 대표 등 보직교수 및 관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모교의 새로운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현하고 대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설립된 평생교육원의 SNUi 서비스는 평생교육원의 원격 교육지원부서가 담당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양호환 원장은 인사말에서 “평생교육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품격을 갖춘 시민 교양교육과 융합과 개방을 선도하는 21세기 열린교육의 장이자, 평생 학습시대를 향한 혁신적 교육 장소”라고 소개했다.

양 원장은 또 “배움과 실천의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모든 분들의 소중한 꿈이 의

미있게 발현되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식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Ui 강좌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파일럿(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9월부터는 정식으로 연간 4개 학기, 학기당 12주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공 강좌는 학내 교수, 단과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를 공모해 선발함으로써 서비스 프로그램을 고급화하고 다양화할 예정이다.

수강 절차는 SNUi 홈페이지(<http://snui.ac.kr>)에서 강좌를 선택한 후 등록하면 된다.

지난 프로그램은 과목당 3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정규 학기부터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음 수강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된다.

수강생은 프로그램별로 수강을 도와주는 튜터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원장과 강의제공기관장 공동명의로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과정인 평생교육원은 오는 9월 개강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8월 중에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다.

* 이 글은 지난 6월 28일자 'NY Times'의 Op-Ed에 게재된 Noah Feldman 교수의 글을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께서 번역하신 것이다.

Feldman교수는 이슬람 사상 전문가다. 유대인으로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프랑스에 능통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이라크 헌법을 기초하는 일에 참여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로즈 스칼라십으로 공부했다. 그의 부인 지니 석은 한인 여성으로 여섯 살 때 이민 와 역시 하버드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부 송시(頌詩)

김동무

정희자(미대 50)

좁은 길 넓은 길은
늘 함께 걸었다
가다가 샘을 만나듯
즐거움을 서로 나누었다

아들과 딸 새 생명에 위해
함께 한 세월이 너무도
짧았다

또 다시 우리는 둘만 남았다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시면
생각해서 슬퍼했듯이

이제 김동무 잃게 되면
나 홀로 어찌 살까,
미리 슬퍼진다

논 단

수필 · 칼럼 · 시



괜한 속병

장병선

경명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퇴직 후 집에서 버터볶아 아내 내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적장 다닐 때만도 따뜻하게 맞던 아내였다.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 붙어다니는 신세. 하긴 아내가 이제 앞치마 벗고 바깥바람 쐬다고 맛할 일인가. 주름진 얼굴이 안쓰럽다. 제 갈 길 간다고 누구도 맛할 일이 아닌데 괜히 속병 앓았다. 40여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쳤

다. 집으로 나왔으니 직장 다닐 때와 다른 변화를 느낀다.

“밥 먹자, 술 마시자” 하며 다가오던 사람들도 뜸해졌다. 명절 때 주방에 놓이던 선물상자도 보이지 않는다. 수시로 울리던 전화벨도 잠잠해졌다. 친지나 지인이 자주 왔던 거실 의자도 신문잡지들만 쌓인다. 아내마저 내 곁에 있을 때가 드물다. 물론 천성적으로 무뚝뚝한 성격에다 아기자기한 팔채주라곤 없는 내 탓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은 집에서 가끔 손자, 손녀들과 논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재미도 누리지 못한다. 자식들이 외국으로 제 갈 길로 떠났기 때문이다. 아들은 미국으로, 두 딸은 일본으로.

그러니 나이 든 부부만 사는 작은 영지(領地)에 가장이라고 집에 버티고 있어 봐야 아내 내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틈만 나면 수영이다. 헬스센터다 하여 밖에 나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간다. 월급 타다 주던 시절에는 끼니 때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놓고 “국이 식어요”라고 따

뜻하게 맞던 아내였다.

그러던 아내가 달라졌다. 어떤 때는 친구들과 밥 먹고 들어가니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도 한다. 가정이 집을 지키고 있어도 신경을 별반 쓰지도 않는다.

하기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으면, 빗자루에 쓸러도 쓸러나가지 않고 빗자루에 달라붙는 ‘젖은 낙엽’처럼 아내에게 붙어 다니는 신세란 한탄이 서로 나오니, 나만이 겪는 처지는 아닌 듯 싶다.

만감이 서린다. 일본·미국·브라질 등지로 근무를 옮겨 다니며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없는 고된 외국근무를 했는데 “이런 신세가 됐다” 싶어 심정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평생 월급 받을 직장이라도 구해볼걸...”

전화가 온다. 막내딸이다. 아빠 엄마 결혼 40주년이라고 일본에서 오겠다는 것이다.

그 전화를 받자 아내는 신이 났다. 내겐 주지 않던 인사를 달이고, 비싸다고 사 먹지 않던 명란젓도 사오며 주방을 들

비 오는 날

마종기

구름이 구름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 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구름이 구름을 갑자기 만나면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

비가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비는 비끼리 만나나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마종기 시인〉 연세대 의대와 서울대 대학원 수료. 1969년 박두진 시인이 현대문학에 시 ‘해부학 교실’을 추천해서 등단. 한국문학 작가상, 미주 문학상, 동서문학상 등 수상.

락거린다.

나는 며칠간 딸아이와 같이 지낼 희망에 부른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도 해야지, 하며 나름대로 찾아갈 곳의 순서도 뽑았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기대가 어긋난다. 공항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애는 엄마와 같이 전에 다니던 미장원에 다녀온다며 둘이 팔짱을 낀다. “이럴 수가!”

하지만 “아빠 미안해요. 빨리 돌아올게요”라고 미소 지으며 나서는 딸애를 말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딸과 오붓히 즐기려던 오후 일정을 모두 접어야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홀로 멍하니 응접실에 앉아 생각하니,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오랜만에 딸애의 머리를 커트하러 미장원에 간 아내를 시샘하다니,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졌을까.

전에는 이해심이 많다는 말을 들곤 했는데... 자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린다.

“배고프지요? 딸애가 사 온 ‘샐러드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웃게 몇 군데를 둘러서 온다는 아내의 전화다. 쇼핑은 나와 함께 다녀도 되지 않느냐며 짜증을 냈지만, 곧 들어간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던 아내가 석양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안방에서 사 온 옷들을 열어 보며, 근래 듣지 못했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난 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TV를 본다. 하필이면 ‘파고다 공원 노인들의 하루 생활’이란 특집 프로그램이다.

지난 날이 그랬다.

1977년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 부임할 때다. 가족 데리고 외국에 나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아빠 덕에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다”고 내 손을 꼭 잡던 아내의 그 정겨운 표정은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때는 아내도 애들도 내 곁에 있었다. 백화점을 갈 때도 동네 식당점을 들를 때도 나만 따라다녔다. 이제 내 힘도, 가

정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으니...

바깥이 어둑해져서야 아내와 딸은 거실로 나온다. 딸애가 선물이라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내게 건넨다.

“저녁은 외식해요”라는 딸아이의 말이 떨어지기에 바쁘게 아내는 “그러자”며 맞장구를 친다.

둘만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생일 날에도 식당 음식이 비싸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아내가 아닌가.

복욕리가 좋았다며 아내는 선뜻 앞장을 선다. 절대로 싸지 않은 생선 요리를 모처럼 먹어 보자는 심사다. 밥 사 달라고 할 때나 끼워주는 서러운 가장이 됐다. 식당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아내는 딸과 연방 껌속 딸을 주고받는다.

하긴 아내의 원기도 약해졌다. 낯선 외국에서 호장은 커녕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 접대에 집안을 쓸고 닦고, 항상 행주를 들고 살았다.

이제 앞치마 벗고 바깥바람 쐬면 그리 맛할 일이 아니다. 애들 없는 빈 동지에서 아내인들 무슨 힘이 솟겠는가. 축 처진 어깨와 주름진 얼굴이 그저 안쓰럽다. 그래도 막내딸을 보며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

댓새 동안 집에 있던 딸애를 공항에 보내고 오면서 내 삶을 뒤돌아본다.

아이들이 커져 제 갈 길을 떠나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 자기 일에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때문에 좀 쓸쓸함을 느낀들 그 누구를 맛할 일도 아니다.

필연적인 수순이다. 언젠가는 홀로 될 연습을 하는 것이 요즘의 내 삶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보니 당연한 일에 괜히 속병을 앓았다.

〈장병선〉 1937년 경북 영천 출생.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해외무역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2003년 수필 ‘고향 길’로 신인상 수상. 2008년 제7회 시흥문학상(수필), 2007년 타고르문학 대상, 2008년 제13회 한국생활문학상. 수필집 ‘오동나무 그 곁처럼’, ‘느긋이 걸으니 이런 즐거움도 있네’ 발간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김홍목

문리대 사회학과

사람의 두 눈은 왜 얼굴의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을까. 눈과 귀와 콧구멍은 두 개씩인데 유독 입만은 한 개 뿐일까. 입은 닫을 수 없고 눈은 감을 수가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혀는 어째서 이와 입술의 이중 장벽 속에 갇혀 있을까.

조물주가 창조한 생명의 신비, 인체의 비밀은 너무나 오묘하다. 인간의 지혜로 그 메커니즘을 모두 풀기란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의 상상력은 과학기술보다 먼저 그 신비와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그것이 허구든 경구(警句)든 e-mail에 나도는 ‘이목구비의 신비한 배치’에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오관(五官)은 오감(五感)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 즉 눈(시각)·귀(청각)·코(후각)·혀(미각)·피부(촉각)를 일컫는다. 이 중 피부는 제외하곤 모두가 얼굴에 자리 잡고 있다. 얼굴도 피부로 덮여 있으니 실은 오관 전부가 얼굴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그 중 눈은 얼굴 맨 위쪽에 있다. 모든 일을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소명이랄까. 눈이 머리 앞쪽에 박힌 것은 매사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뜻이다. 눈이 보배요, 자기 눈보다 나은 목격자는 없다고 했으니 항상 바로 보아야겠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한다. 눈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안정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홍중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홍중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구태여 소개장이 필요없다.

‘저 달은 하나라도 8도를 보건마는 요 내 눈은 둘이라도 입 하나 밖에 못 보네.’

청양(靑陽) 민요의 가사 한 대목이다. 재미있는 시적 표현이지만, 눈에 콩깍지가 끼거나 제 닭 잡아먹는 장님 눈으로는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은유가 담겨 있다.

눈은 무엇이든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볼 수 없다. 형제들 눈에 든 가시를 보면서, 제 눈에 든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성경은 이런 청맹(靑盲)을 경고했다.

“네 눈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고.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남의 말을 차단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것이다.

입은 한 개인에 귀는 두 개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곱으로 해야 한다는 섭리다. 입보다 귀가 위쪽에 위치한 것은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악에 엄정하게 임했다.

귀가 없는 자화상의 주인공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어느 날 창녀촌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무심코 성서를 펼쳐 보았다. 거기에는 “너의 오관의 하나가 타락의 죄를 범하

거든 그것을 잘라 불에 던져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면도칼로 귀를 잘랐다고 한다.

얼굴의 맨 아래쪽에 있는 입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이빨 성벽과 입술 성문으로 막혀 있다. 미음과 분열의 원인이자 화의 근원인 혀의 준동을 막는 게 목적이란다. 혀를 잘못 놀려 상처주는 일이 많으므로 꼭 진실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창조주의 교시가 담겨 있다.

사람은 한평생 대략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한다. 한 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지니거나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이나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는 말도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일찌기 ‘평생 선(善)을 행해도 한 마디 말의 잘못으로 이를 깨뜨린다’고 경계했다.

석가모니도 ‘입은 몸을 치는 도끼이며, 몸을 찌르는 칼’이라고 비유했다.

말의 폐해는 옛날부터 순기능보다 심했던 것 같다.

‘입은 머리의 항문(肛門)’ ‘입과 말(馬)의 공통점은 둘 다 재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격언이 있을 정도니까.

술은 물을 되담을 수 없듯 한번 뱉은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으니 참으로 말조심 입단속이 중요한가 보다.

그러려면 수시로 거울을 쳐다보며 이목구비가 왜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 번씩 음미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김홍목〉 경북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 대구방송 이사 24년간 언론계. 이후 (주)청구 상무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주)화진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인의 악습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 ‘한국인 진단’이 있다.

세계명화 감상<6>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명작들



‘최후의 만찬’ 벽화 1495-98, 15' x 29' 산타 마리아 수도원, 밀란

사상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하나 화가·건축가·엔지니어·해부학자 등의 거인

임이섭(미대 54)

레오나르도 다 빈치(1403~1518)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다방면의 천재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화가며 건축가고, 엔지니어며 해부학자 등 르네상스 시대의 다재로운 거인이다.

1452년 플로렌스에서 한 부호의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미남인 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당대 플로렌스에서 명망이 높던 페로키오의 문하생으로 미술과 조각의 사사를 받았다.

대포와 군함과 많은 군장비를 발명하고 설계했으며 무엇보다도 절세의 명작 초상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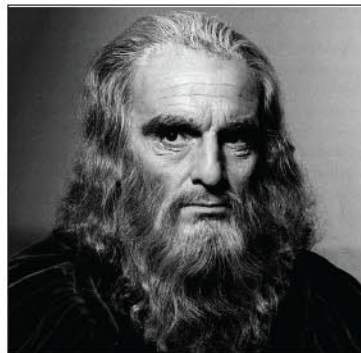
나리자’와 벽화 ‘최후의 만찬’을 남긴 위대한 미술가다.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1495년 밀란의 군주로부터 청탁을 받고 4년에 걸쳐 밀란 산타 마리아 수도원 안의 벽화로 제작했는데 15피트 높이와 29피트 길이의 대작이다.

하지만 천재적인 과학자인 다 빈치가 벽화재료를 잘 쓰지 못해 제작 수년 후부터 페인트가 벗겨지고 퇴색하는 등 최근까지 보수공사에 많은 무리를 보여주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수난당하기 전날 밤 열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며 ‘이 중 한 사람이 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

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일까’ 수근거리는 표정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 빈치는 화가로서 이 그림을 그렸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열두 제자의 성격들을 비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 머리를 빛의 근원과 소실점으로 그린 정확한 투시도도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열두 제자를 세사람씩 구성하고 창문도 셋이며 예수도 삼각형으로 삼위일체를 강조한 것도 특이한 것이다.

모나리자

미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상화인 모나리자는 다 빈치가 1503년부터 5년에 걸쳐 나무판 위에 그린 유화로, 그 모델이 당시 플로렌스의 부호 지오콘도의 부인이었다고 하지만 다 빈치의 비밀 애인이었다는 설 등 확실치 않다.

다 빈치는 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완숙기에 완벽한 이 초상화를 그려낸 것이다.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과 멋

←St. Jerome in the Wilderness 템페라 1480, 41" x 30" 바티칸 미술관

있는 의상 속의 풍만한 가슴, 아름답고 완벽한 눈, 코, 입은 순결하면서도 애정적인 표정으로 신비스러운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여인의 미소는 이 그림의 주제로서 그 유해를 찾아볼 수 없이 많은 화재와 풍자의 대상이 되어 수수께끼 같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 여인의 초상은 피라밋 형으로 구도됐으며, 두 손을 포켓 볼때와 부드러운 배경은 그림 전체의 조화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알려진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는 것 같다.

St. Jerome in the Wild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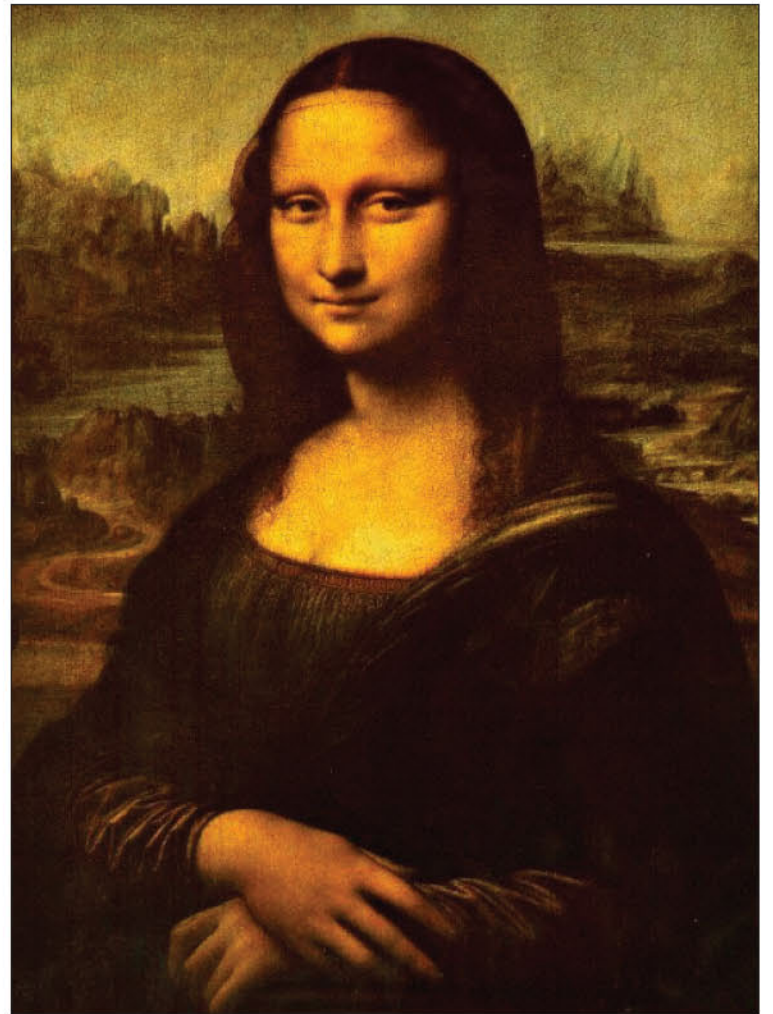
이 그림은 4세기 당시의 석학

이며 성경번역자였던 성 제롬이 시리안 황야에서 고뇌하며 오른손으로는 바위를 기대고 그의 발끝치에는 사자가 움추리고 있는 극적인 장면이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있지만 바위같은 튼튼한 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의 감정표현이 비탄에 넘친 심각한 표정으로 당시 저조했던 다 빈치의 모습이라고도 한다.

이 그림의 파격적인 구도도 수수께끼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다 빈치의 또하나의 미완성 작품으로서, 19세기에 뒤늦게 로마의 어느 가게에서 채상보로 쓰고 있던 것을 기적으로 발견했다고 한다.

모나리자 1503-8 유화 30" x 21" 루브 박물관, 파리



지역 소식

시카고



시카고 동창회

Busse Forest서 하계 피크닉

“코끼리 두마리가 모두 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끼리 끼리’가 되지요.”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지난 7월 Busse Forest에서 하계 피크닉 행사를 가졌다.
 동문들과 가족 등 120여 명이 모인 이 날 이영우 회장은 이처럼 코믹 개그를 시작하면서 서두(序頭)를 열었다.
 이 회장은 “무척 더운 기온임에도 03학번부터 46학번까지 노장청 동문들이 한데 어울어진 기억에 남는 피크닉이 될 것

”이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임현제(의대 59) 동문의 Non-Sense 퀴즈 문제로 본격적인 피크닉 행사가 개시됐다.
 “돼지가 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일+일은?” “이 + 이 는?” “이 -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는?” “처녀가 애를 배면 해당되는 죄목은?”
 이날 정답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는 이 퀴즈에서 유효정 동문은 가장 빠른 시간에 4개를 맞춰내 가장 많은 선물을

↑ 지난 해와 같이 Busse Forest에서 열린 하계 피크닉에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 노재욱 동문>

가져갔다.
 그러나 화씨 95도를 웃돌았던 이 날의 높은 기온 때문에 당초 계획됐던 배구 시합과 골프의 집값 경기는 취소돼 남몰래 실력을 쌓아온 동문들의 아쉬움을 샀다.
 행사장에는 각종 과일과 야채에 음료수는 물론 소갈비와 돼지갈비, 닭고기, 명태 코다리, 콩치 등이 120여명 분으로 푸짐한 먹거리 상이 준비됐다.
 이 날 박건태(자연과학 90, 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 동문이 처음부터 화부(火夫)구실(?)을 도맡아 고기 굽는데 가장 큰 수고를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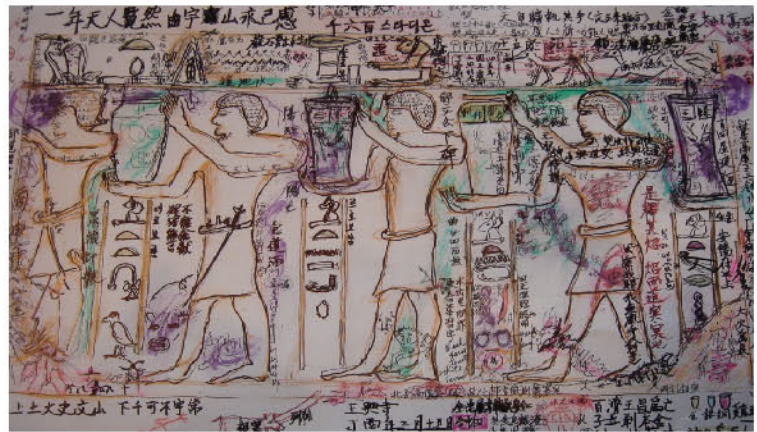


시카고 골든 클럽 '주역' 세미나 열어

서승환 동문 열강

‘시카고 골든 클럽(회장 박영규, 농대 57)’이 지난 7월 22일 세노야 레스토랑에서 ‘주역(周易)’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서승환(치대 55, 왼쪽 뒷사진) 동문은 “주역은 동양 학설의 한 분야로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나 서양에서는 이미 300년 전부터 연구(아랫 사진 왼쪽)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동문은 “이집트 고대 도시 Hierakon Polis에서 발굴된 돌출벽화 Relief가 대영박물관 지하실에 전시돼 있는 것을 보았다. 약 1천500년 전 것으로 추정돼 있는 데 이 벽화에서 주역의 근원이 되는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말했다.
 서 동문은 이 벽화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역의 근거를 풀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서 동문은 그 벽화에 주역의 기초 중 하나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기둥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또한 한자인 ‘咎’자와 ‘陶’자가 그림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서 동문은 이 벽화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千六百스타더온’으로 명명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왼쪽 아랫사진). 이로 보아 주역에 근거하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 아시아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하고 있다.
 ‘주역(周易)’이란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뜻이다.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夏)나라 때의 연산역(連山易), 상(商)나라의 귀장역(歸藏易)이라는 역서가 있었다고 한다. ‘역(易)’이란 변역(變易), 즉 ‘바뀐다’ ‘변한다’는 뜻으로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다. ‘역’에는 易簡(이간)·변역·불역(不易)의 세 뜻이 있다. 또한 ‘역’은 양(陽)과 음(陰)의 이원론(二元論)으로 이루어진다. 즉, 천지만물은 양과 음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8괘(八卦)와 64괘, 그리고 폐사(卦辭)·효사(爻辭)·십익(十翼)으로 돼 있다.
 주역은 유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주철학으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 유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지역 소식

필라델피아 • 기타



필라델피아 동창회

이사회 열고 손재욱 회장 이임인사

필라델피아 동창회 이사회가 지난 6월 우리 동포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켈튼햄 타운 십에 소재한 서울가든 식당에서 오후 6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행사 중 주요 내용은 ▶ 이사회칙 개정안 ▶ 고병은 동문의 제 19차 평의원회 참석보고 등이었다.

이사회칙은 지난 1978년 처음으로 개정된 이래 1985년과 1998년, 그리고 2004년 개정된 바 있어 이번이 다섯 번째 개정이다.

종전까지의 회칙에서는 일반 회원과 이사를 구분해 그 의무와 권리를 규정했지만 실제 도입을 가질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날 손재욱 회장은 개정 제안 설명에서 ‘회칙대로 지켜지지 않을바에는 아예 그 구분의 장벽을 허물어 이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대 및 대학원에서 수학했거나 졸업한 사람은 모두 회원 겸 이사의 자격을 부여할 것’을 발의했다.

따라서 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한 규정도 철폐하고 제한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안은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됐다.

평의원회 보고 순서는 고병은 동문이 했다.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 시카고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의 사회로 몇 가지 이슈로 개최됐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에서는 4명의 이사(손재욱 회장, 조화연 부회장, 서중민 전회장, 및 고병은 이사)가 이 평의원회

의에 참석했다.

전 미주에서 온 평의원들을 만나 보면 그 분들의 필라 동문회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들은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느 때인가는 필라델피아 동문회에서라도 미주 총 동창 회장을 맡아 줄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20차 평의원 회의는 내년인 2011년 남가주 LA에서 열리며 김은중 회장이 송순영 회장으로 부터 회장직 바톤을 이어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또한 차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일이 있어 선거전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자생적으로 탄생한 서울대 필라델피아 동창회답게 2011년 LA 평의원회 회의 때는 더 많은 참석자가 생기기 바란다는 말로 보고를 끝냈다.

IICD 이주경 동문

“동문 여러분의 도네이션 바랍니다”

“아프리카 오지와 중남미 국민자들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한 톨이라도 우리는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세요. 한국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시카고 동창회 하계 피크닉에서는 이주경(사회 03) 동문이 참석해 이색 캠페인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이 동문은 봉사단체인 IICD(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일원으로 동문들의 도네이션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참석한 것이다.

IICD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 아프리카나 에콰도르 등 오지에 파견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주로 AIDS예방을 비롯한 각종 질병 예방 교육이나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IICD(MI)는 Humana People to

People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기관으로 프로그램 지원자는 3~6개월간 Michigan주의 Dowagiac에 위치한 IICD 캠퍼스에서 연수 후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현지로 파견돼 활동하게 된다.

총 14개월의 아프리카 프로그램과 각각 9개월씩의 브라질 프로그램, 중미(벨리즈, 에콰도르)프로그램이 있다.

이곳에서 역시 현지 봉사활동으로 아동 구호활동, 질병퇴치운동, 농촌 진흥운동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음 달에 멕시코 옆 벨리즈로 갑니다. 그곳 인구는 30여만 명 정도인데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태반이죠.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 모두가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하죠.”

IICD는 지난 197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본부는 짐바브웨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브라질



↑ 고병은 이사가 지난 6월 11~13일 시카고에서 열렸던 제19차 평의원 회의 참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필라델피아 동창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손재욱 회장이 일어서서 임기 동안의 업무보고와 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이이 김재완 총무의 재무보고, 서중민 이사의 장학기금 보고도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아 수고한 손재욱 회장(가정대 77)이 주관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손 회장은 그 동안 필라델피아 동창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행사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봄, 가을 피크닉 ▶ 크리스마스 파티 2회 ▶ 세미나 2회(곽금주 교수의 ‘한국(외국인) 이민 가정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도전’, 이내원 동문의 ‘이순신 장군’) ▶ 필라델피아 동포들을 위한 큰 음악회 ▶ 컬러 사진으로 게재돼 있는 필라델

피아 동창회원 명부 제작 등이다.

특히 필라델피아 동창회원 명부는 손 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동창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평가했다.

이 명부는 필라델피아 회원들의 동향에 따라 에 따라 Update 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손 회장의 감상어린 이임 인사에 동문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7월부터는 조화연 동문(음대 64)이 회장 직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6시부터 펼쳐져 모두가 활기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아쉬움 속에 밤 10시 30분이 넘어 끝났다.

<정홍택>

동남미 국가, 한국과 일본 등 동남아 국가에서 2천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동문은 현재 Michigan지부에서 11명의 회원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 동문은 “미주 동창회 선�후배님들께서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의 연락 전화번호는 269-591-2719(Cell)이다.

이주경 동문(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비트(맨 왼쪽), 이윤서(왼쪽에서 두번째), 이필선(오른쪽) 회원과 함께 도네이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역 소식

남가주 • 뉴욕



남가주 동창회

토론회 '코러스21' 합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모토로 지난 5월 출범한 토론회 모임 ‘코러스 21’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연결해 21세기 한국의 갈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가진 ‘KorUS 21’ 모임은 한국의 역사, 문화, 주변국과 관계 등을 테마로 특정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금까지는 주로 책을 정해 토론회의 주제로 활용했는데 5회부터 영상장비가 갖춰진 모교 미

주센터 사무실을 이용, 영상자료도 활용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다소 거창한 주제를 함께 생각하는 이유는 세 천년의 첫 1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뿐 아니라 다가올 한국의 미래에 앞으로 미주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과 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미주 한인들의 장점을 활용해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국의 주변국들과 친화적인 태도로 상생의 길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전사적 기질과 선비적 기질, 양쪽 기질이 잘 조화된 시기에 한민족이 더욱 융성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21세기 롤모델을 찾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한다.

지금까지 참여 발표자와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생각의 지평을 넓혀라 - 광개토대왕 코드= 발제(오세준



김은중 회장 초청 관악연대 점심모임

관악연대가 지난 7월 김은중 차기 총동창회장의 초청을 받아 점심 모임이 이뤄졌다.

이 날 30여명이 모여 화기에 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갈 관악연대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해서 너무 반갑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내년도 연극을 준비하겠다는 관악연대 관계자의 말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꺼내려 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동창회의 기

대가 크니 적극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경희 관악 연대장은 “이제 관악연대가 동창회의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단계가 됐다. 단과대학 경계의식이 거의 없는 관악연대의 특성상 총동창회의 융합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경희 연대장은 “일을 하 기엔 연대장의 임기가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인삿말을 던졌다.

<www.acropolistimes.com>

84, 밝은한의원 운영)

▶제국을 말하다= 신복례(83, 중앙일보 기자)

▶우리도 모던한 한국의 힘= 김문영(83, 제정권설턴트)

▶붉은 악마의 21세기 문화코드(이어령 저)= 장주천 (Peter Chang, 81 회계사)

▶코리아니티(구분형 저)=안재엽(84, 상담심리 전문가)

이 모임은 서울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나, 일반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한달에 두번, 격주로 목요일 저녁 서울대 미주센터 (3699 Wilshire Blvd., #970 L.A. CA 90010 Wilshire + Serrano Ave.)에서 모인다.

<www.acropolistimes.com>

뉴욕 동창회

2010년 제1차 이사회및 정기총회

지난 7월 1일 새로 출범한 제32대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에드워드 강)는 7월 20일 7시 후러성 대동연회장에서 ‘제32대 2010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이날 윤병하 사무총장이 진행한 이사회에서 추제욱 동문(의대 63)이 동창회 추천으로 이사장, 또 김승호(공대 71)동문이 부이사장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었다.

화씨 90도를 오르내린 무더위였지만 모두 37명(위임장 2명 포함)의 동창회 회원 및 이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사회 후, 윤병하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2010년 정기총회는 에드워드 강 회장의 인사, 정택수 골든 클럽 명예회장의 격려사,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의 축사와 제31대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재무보고의 토의와 결산 통과는 감사후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제32대 뉴욕지역 동창회가 작성한 ‘2010/2011년도 서울대 뉴욕지구 예산안’이 심도있는 토론 후, 동의와 제청으로 표결에 부쳐져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총회에서는 권문웅(미대 61), 원문자(사대 63)동문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으로 인준

됐다. 사업과 행사 계획 발표 순서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관계로 안전에 대한 표결처리 없이 각 분과 위원장들이 앞으로 1년간 각 분과의 사업 및 행사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전 순서에서는 모교 동창 회관, 장학빌딩 건립에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이 빌딩 건립에 도움을 준 분들을 위한 동판 제작과 영구 보전에 대한 총동창회의 계획을 설명하고, “뉴욕지역은 동관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면 후손에게 크게 기쁨이 될 것”이라며, 뉴욕지역 동문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윤정옥 이사가 “이 사업을 뉴욕지역 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보충 설명을 한 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또한, 윤정옥 이사는 그동안 동창회 참여가 비교적 소원했던 미술대, 음악대 동문에 대한 동창회 참여율에 대해 언급하고 동창회가 된가 예술이나 문화를 대하는 균형잡힌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로 제32대 뉴욕지역 동창회는 본격적인 동창회 운



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신임 회장단 이름과 직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에드워드 강(사대 60) ▶수석부회장 = 김영만(상대 59) ▶이사장 = 추제욱(의대 63) ▶부회장 = 권문웅(미대 61) ▶부이사장 = 김승호(공대 71) ▶부회장 = 원문자(사대 63)

이날 참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강 에드워드 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계동회 동문, 권문웅 부회장(맨 뒷줄 오른쪽 다섯번째), 김광현·김난기·김문경·김세중(위임장) 동문, 김승호 부이사장(맨 뒷줄 오른쪽 네번째), 김영덕·김원영·김정희·김종훈·김창수·김태환·박대규·손경택·손규성·신용남·양인희·우한호 동문, 원문

자 부회장(가운데줄 오른쪽 세번째), 윤병하 사무총장(맨 뒷줄 오른쪽 일곱번째), 윤정옥·이성기·이수호·이전구·이준행·정인식(위임장)·정택수·조달훈·최수용·최영태·최일단·최철용 동문, 추제욱 이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경수·홍종만 동문.

<윤병하(사무총장) & 김원영>

논 단

칼럼·오피니언

'그냥 걷기'를 읽고

무작정 걷는 길서 발견하는 세상은...

이경훈(사회과학대 83)

사실 누군가 쓴 글에 대해 어쭙잡은 감상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원작이 주는 느낌을 반감시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게티 박물관에 걸린 <붓꽃>을 보면서 그저 그 강렬한 느낌을 즐기면 될 뿐이지 아마추어 실력으로 감상문을 써 봐야 원작에 누를 끼칠 뿐입니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느 분의 추천으로 인터넷에 떠있는 <그냥 걷기>를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단 어떤 분은 "아들 놈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읽어보라고 하고 둘이 함께 '그냥 걷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군대 가기 직전인 어떤 젊은이는 "거침없는 솔직함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겉보기부터 속까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배신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편인 20~2편에는 1천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읽는 것만 해도 눈물이 뿜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에 "그동안 나는 독자의 기대를 염두에 두며 글을 써왔다고 말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포장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원작을 100%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궁금해 하는 분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주인공 -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 대구에 사는 23세 청년입니다. 대학생은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청년이 어느 날 집을 나와 무작정 <그냥 걷기>를 합니다.

2009년 7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전망대를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내친 김에 서울에도 갔다가 결국 전국일주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3개월 동안 말입니다.

이 외형만 보면 감동의 여지가 적습니다. 젊은 시절 무전 여행 내지는 도보여행 같은 것에 한번 이끌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은 아마 그 주인공의 진정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인공은 비상금으로 5만 원을 갖고 떠나지만 이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밥은 주로 라면 뽕글이(라면 봉지 자체에 뜨거운 물을 넣어 먹는 방법)로 매 끼니를 해결하고, 노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도움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에 대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움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인공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조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본문에 보면 딱 한 장의 본인 사진이 나오는데 얼굴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심리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독자들은 여기게 말려들어갑니다. 그의 뜻하지 않은 행운에 같이 기뻐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빠졌을 때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한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쭙잡게 또 여기에 제 의견을 들어드립니다.

저는 이 주인공이 한국 지방도시의 직업 없는 젊은이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받는 유형입니다. 주인공 자체가 본인이 의식했던 안했건, 이 시대의 한 전형인 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맨 바닥에서 저항을 합니다. 조직을 결성하고 해방 이론을 만드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튼튼한 자기 두 발, 누구도 뺏아갈 수 없는 자기 두 발을 이용해서 그저 걷습니다.

자전거도 아닙니다. 자동차 연이 타기도 아닙니다. 샌들 하나 신고 <그냥 걷기>를 합니다. 이것만큼은 신자유주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로 걷겠다는데, 어찌겠습니까?

주인공은 라면 살 돈이 떨어지면 일거리를 찾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쫓아가 '도와드릴 테니 1천원만 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는 눈초리로 그냥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고 1천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고 밥도 주고 돈도 줍니다.

주인공이 제일 기뻐할 때는 일을 하고 약속한 돈을 받고, 여기에 약간의 호의-여분의 돈이나 밥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약 2천원이면 충분히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연재되자 대단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안동의 맘모스 제과과는 빵집은 어느 날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폭주하자 이유를 알아보니, 이 주인공이 이곳에서 빵을 원래 보다 싼 값에 샀던 사연을 적어놓자 이를 안동의 네티즌들이 뒤져 이 빵집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것곳은 네티즌들은 "그때 그 알바생 아가씨를 찾아가 데이트를 해라"고 댓글을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댓글을 달아 "책을 낼 수 있도록 제발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비장합니다. 신데렐라 결론이 아닙니다. 3개월 뒤 주인공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를 동안 잠만 잡니다.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눈을 떠 봐야 3개월 전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주인공의 소극적인 심리도 여전합니다. 이 점이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본에서 저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도, 본인도.

이 글을 읽고 저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PR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방법은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바로 그 차원에서 세상에 접근하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재미있는 곳...이란 생각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젊은이지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글은 문학가들이 쓴 글에 비해 덜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쓰는 당신의 솔직함에는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솔직함이 통할 수 있는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자기 꿈을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3개월의 <그냥 걷기>가 당신의 앞 날에 평생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원작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hit&no=9405>를 방문하세요.

<AcropolisTimes.com>

왼쪽 사진은 <그냥 걷기> 원문에 올라 있는 주인공이 찍은 것이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인류는 한 형제

수많은 인류의 분쟁이 그칠 날 없을까

지종근(농대 56)

인류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스펜서 웰스(Spencer Wells)가 저술한 '최초의 남자', 사이언스 북에 의하면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mt DNA)와 남성의 Y 염색체 DNA를 통해서 인류가 어디서 발생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스펜서 웰스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전학자, 인류학자, 탐험가로서, 미국 지리학회(National Geographic Society) 후원으로 '유전자 지리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인류의 기원을 탐구한 결과를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남겼다.

유인원 종류는 2,300만년 전 지구상에 출현했다.

이후 200만년 전후 호모 속(Homo 屬)에 속하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고 이들이 출생지인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졌다.

베이징에서 발견된 두개골은 호모 에렉투스들이고 유럽에서 발견된 두개골에 의한 것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호모 속에 속하게 명명됐다.

스펜서 웰스 박사는 이들이 구석기 문명을 이룩했지만 이들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단언했다.

현 인류의 조상은 대략 15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던 한 여성을 공통의 어머니로 하는 핏줄이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mt DNA)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의 특징은 몽골로이드의 주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유럽인들은 진화 과정에서 이 흔적이 사라졌다고 본다.

인류는 몇 가지 이유로 6만년 전 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동진하며 이 지구상의 다른 호모를 전멸 시켰던가 다른 호모는 자연법칙으로 도태됐다고 본다.

아울러 남성에게만 있는 Y 염색체 DNA 추적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했음을 주장하게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다.

전술한 진화론에 전연 대치되는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창조론에 입각한 인류 최초의 인간은 신이 창조한 '아담 과 이브'로 출발점은 에덴 동산이다.

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원리인 구약 성경(유대교:토오란)은 대략 기원전 아주 작은 유다 왕국 다윗왕의 16대 후손 요시아왕 때 종교 개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일신교 사상'이 탄생함으로써 당시 궁정관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농부들, 선지자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어

인류 최초의 위대한 성스러운 경전이 집필된 것이다.

히브리 성경은 유대교의 중심 경전이자 기독교 경전 성경의 첫번째 부분이다.

또한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의 원천이기도 하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서이기도 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고고 학자들은 성경의 허와 실을 과학적 토대로 추적해 규명했다.

이스라엘 핑킬스타인과 닐에서 실버맨은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라는 책을 저술했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인류는 투쟁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고 똑같은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피나는 종교 전쟁을 일삼아 왔다.

현대에 와서는 세계가 과학문명의 비약으로 통신정보가 일만화돼 세계가 한 울타리안에 정착돼 온 인류는 한 형제 자매임이 증명됐는데도 투쟁과 분규는 계속되고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끼리는 서로 죽이는 일이 드물다.

반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국가간, 민족간, 종족간, 개인간, 같은 민족간 에도 이해관계, 종교문제, 정치문제, 패권쟁탈, 민족문제, 이념문제, 영토문제 등등 여러 이유로 분쟁을 넘어, 대량 살생을 자행한다.

더 가혹할 일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자살특공대의 폭탄 테러를 감행해 자기들이 속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코저 하는 인간 말종들의 출현이다.

실제로 종교분쟁에 있어서는 같은 기독교인들 간에도 종파와 종단 사이에 몇 천년 전에 쓰여진 성경 문구 하나를 가지고도 치열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2천년 전 십자가의 상에서 피흘리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같은 교회,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하잘 것 없는 일이나 사건을 가지고 싸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내려다 보는 인간사 속에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여질까?

진화론 관점이거나 창조론에 입각한 현 인류의 조상은 한 어머니에 한 아버지로 시작된 형제자매임이 증명된 현실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귀중한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세상을 기원해 본다.

Editor@AcropolisTimes.com



고국 동문

시간 · 공연

시간

■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 최만림 지음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남북체육회담 한국대표 등을 지낸 한국스포츠외교의 산증인 최만림(행정 54입) 이 나 반도체 회

장) 동문이 쓴 책이다. 최 동문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스포츠외교사에 얹힌 비사(秘史)를 자서전 형식으로 펴냈다.

스포츠외교를 위해 전 세계를 누볐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스포츠외교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유치 성공과 두 번에 걸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았다.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 유치 과정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의나무 간행 · 값 30,000원>

■ 서해 NLL은 우리 영토
- 서욱식 지음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서욱식(동양사학 69-73 성결대 초빙교수·본보는설위원) 동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남긴 어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의 표에는 '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중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에서 서 동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가운데 유독 보수를 비난하고 시장주의를 부정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언급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서 동문은 “노 전대통령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 전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우리사회의 편가르기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 점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도리 간행 · 값 18,000원>

■ 식품안전성
- 이서래 지음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지낸 이서래(농화학 51~55) 동문이 저술한 마지막 저서다.

이 책은 먼저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과학적 시각과 사회적 규제, 평가 체계를 정의하고 유독물질의 분석기술과 독성학의 기초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또 식품 중의 잔류농약과 안전성 평가, 중금속 오염과 위해성, 식품첨가물의 사용현황과 안전성, 동물용 약품의 사용과 잔류성 규제, 곰팡이독소, 자연식품 중의 천연독소에 대해 기술하는 등 방대한 국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자유아카데미 간행 · 값 39,000원>

■ 회의를 잡히는 법
- 전영무 지음

KBS 아나운서 실장을 지낸 수원대 전영무(국어교육 53-57) 명예교수가 회의를 잡히는 법으로 책을 소개했다.

전 동문은 “회의 시대에 살면서 회의 및 회의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스터하는 일은 인생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성공한 사람은 회의를 잘한다”고 주장한다.

회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 회의’와 ‘의사법 회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의사법 회의 효시는 협성회(1896년)와 독립협회(1897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말미에 협성회 규칙과 독립협회 토론회 규칙도 살펴볼 만하다.

<민지사 간행 · 값 12,000원>

■ 문화경관의 원형과 변형
- 오홍석 지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오홍석(지리교육 54-58) 전문연구위원이 문화경관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담아 놓았다.

전통보전과 함께 시대에 부합되는 ‘과감한 재창조’를 강조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 인천 홍미영 부평구

도로 주택, 건물, 도로, 교량, 불탑, 교회첨탑, 묘지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문화경관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책은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내세우면서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고유의 유형문화’가 어떤 것인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재정립의 시대’를 열어가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부연사刊 · 값 30,000원>

■ 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
- 유석열 지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지낸 유석열(사회교육 58~62) 동문이 북한종말의 징후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경제난, 둘째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체제 이탈, 셋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승계 불투명으로 인한 체제 불안이다. 넷째는 평양 권력 핵심 실세들의 계속되는 병사와 나머지 실세들의 심각한 결판, 다섯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로 주변국들과 관계 악화 등이다.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북한은 초유의 벼랑 끝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생존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柳동문은 지적하고 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간행 · 값 14,000원>

■ 노벨상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의 이해
- 김경열 지음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김경열(화학 67~71)교수가 지구에 대한 과학 지식을 흥미롭게 풀어놓았다.

마지막이 왜 판지, 46억 년이 된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구의 탄생 과정,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 뿐인지 등 한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궁금증들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했는지 설명해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지구의 비밀을 풀어가며 즐거운 지구여행을 선사한다. 자유아카데미 간행 · 값 29,000원>

이 책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 인천 홍미영 부평구

최순영·홍미영 여성정치포럼 발행

■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
- 여성정치포럼 발행

이 책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최고위원, 인천 홍미영 부평구

공연

■ 문재연 피아노독주회
-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문재연(기악 92~96 국제예술대 강사) 동문(사진)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문 동문은 이날 스칼라티의 소나타를 비롯해서 시마노프스키,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 조소연 피아노독주회
- 예술의 전당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소연(기악 94~98) 동문(사진)이 지난 7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가졌다.

이날 스칼라티,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뛰어난 연주능력을 과시했다.

창장, 서울 서대문구 의회 서정순(소비자운동학 88~92)의

원 등 지역민들을 위해 팔로 뛰고 있는 여성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죽 ‘여성에게 다시 정치를 묻다’를 통해 여성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이 하는 정치는 무엇이 다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정치포럼 이정자(독문 59~63)대표는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솔한 현장 고발, 사심 없는 정치활동, 여성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염두에 둔 의정활동, 현실정치를 뛰어넘는 고군분투와 좌절,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는 여성정치인들의 풀뿌리 지방정치에 대한 귀중한 경험들을 묶은 이 책은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영사 간행 · 값 10,000원>

■ 이영희 바이올린독주회
- 예술의 전당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인 이영희(기악 83-87 동문(사진))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독주회를 개최했다.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이 동문은 브람스, 슈만 등의 작품으로 신선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 이주혜 피아노독주회
-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이주혜(기악 92~96 성신여대 강사) 동문(사진)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러시아와 수교 20주년 기념 피아노독주회를 열었다.

이날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보로딘, 프로코피예프, 발라키레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
- 현경병 · 박용안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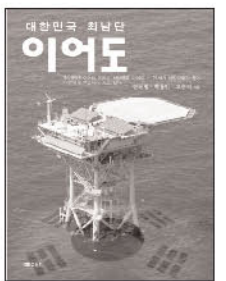
현경병(해대원 85~87)국회의원과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박용안(지질과학 57~61) 명예교수 등이 우리의 해양영토 이어도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어낸 서적이다.

이 책은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 구전해오는 신화와 전설, 고문헌 자료와 제주도민의 증언을 담은 역사, 종합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소개, 미래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최남단은 이제 마라도가 아니라 이어도” 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어도에 발을 딛고, 드넓은 대평야를 향해 큰 꿈을 품으라”고 말한다.

<셋별 디엔피 간행 · 값 10,000원>



내외 동문 동정

수상·인사·부음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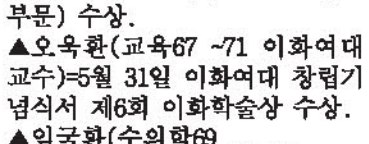
▲이제창(법학56 - 60 세마울운 동중앙회장)=5월 18일 몽골 차하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으로부터 몽골세마울운 동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나이달달(평화친선) 훈장' 수훈.



▲김상복(종교57 - 63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장)=최근 미국 인디애나 그레이스 대학 졸업식에서 우수 동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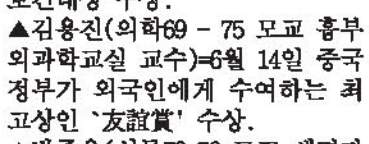
▲배영호(섬유공학63 - 70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6월 30일 제19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오옥환(교육67 ~71 이화여대 교수)=5월 31일 이화여대 창립기념식 제6회 이화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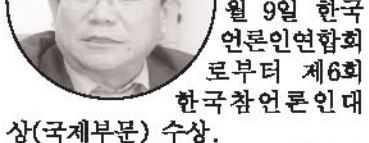
▲임국환(수의학69 - 73 고려대 보건의학대학장)=지난 6월 3일 한국환경보건학회로부터 제12회 환경보건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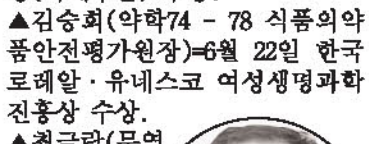
▲김종진(의학69 - 75 모교 홍부 의과학교실 교수)=6월 14일 중국 정부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友誼賞' 수상.



▲박종욱(식물72-76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6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박승준(중문74 - 78 인천대 초빙 교수·본보 논설위원)=6월 9일 한국 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국제부문) 수상.



▲김승호(약학74 - 7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6월 22일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진흥상 수상.



▲최국락(무역76 - 80 SBS 보도본부장)=6월 9일 한국 언론인 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방송경쟁부문) 수상.



▲박노승(무역77 - 81 경향신문 편집국장)=6월 9일 한국 언론인 연합회로부터 제6회 한국참언론인대상(경제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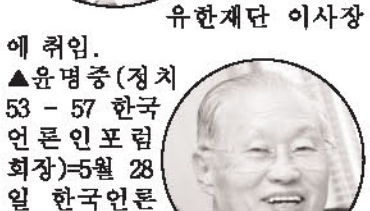


▲장명우(치의학83 - 89 하버드대 교수)=최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인사



▲정원식(교육48 - 54 전 국무총리·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본회 고문)=지난 6월 14일 유한재단 이사장에 취임.



▲윤명중(정치53 - 57 한국 언론인포럼 회장)=5월 28일 한국 언론인포럼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4대 회장에 재선임.



▲홍재형(상학56 - 60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국회의원)=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



▲박희태(법학57 - 61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



▲하순봉(독어교육60 - 64 한나라당 상임고문)=6월 16일 경남일보 회장에 취임.



▲이준일(정치61 - 65 중앙대 명예교수)=6월 22일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도자들의 모임인 예장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



▲주덕영(기계공학62 - 66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6월 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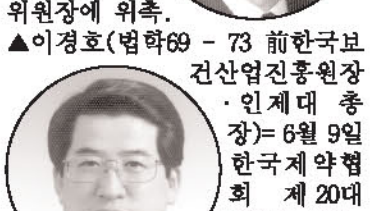
▲구자홍(미학63 - 70 명동예술극장장)=6월 18일 재단법인 국립극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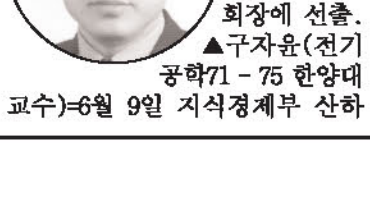
▲명노승(법학65 - 69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6월 3일 주식택지신탁 심사위원장에 위촉.



▲현정택(경제67 - 71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인하대 교수)=6월 21일 임기 3년의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이경호(법학69 - 73 전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장·인제대 총장)=6월 9일 한국 제약협회 제20대 회장에 선출.



▲구자운(전기공학71 - 75 한양대 교수)=6월 9일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지창훈(교육71 - 77 대한항공 총괄사장)=6월 8일 한국·우즈베키스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정인식(경영71 - 75 전 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6월 14일 산은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김진우(농경제73 - 7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신센터 소장)=최근 제9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에 선임.



▲권태규(경영74 - 78 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조달청장)=6월 7일 주아랍에미리트 대사에 임명.



▲안양욱(체육교육75 - 79 서울교대 교수)=6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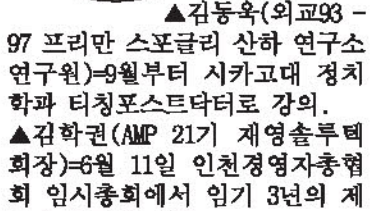
▲이혜민(영문76 - 80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6월 17일 주필리핀 대사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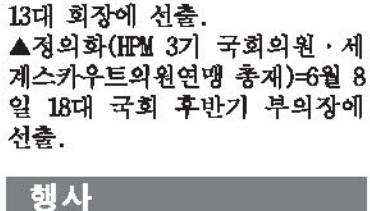
▲이대복(행정대원77 - 81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인천공항세관장)=6월 22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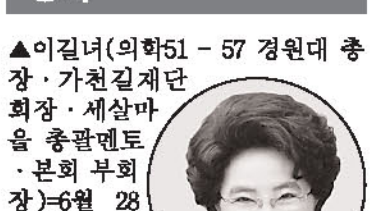
▲김동욱(외교93 - 97 프리먼 스포츠리 산하 연구소 연구원)=9월부터 시카고대 정치학과 티칭포스트닥터로 강의.



▲김학권(AMP 21기 재영솔루텍 회장)=6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협회 임시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13대 회장에 선출.



▲정희화(HPM 3기 국회의원·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6월 8일 18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



▲이길녀(의학51 - 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세살마을 총괄레토·본회 부회장)=6월 2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영유아기 교육을 위한 '세살마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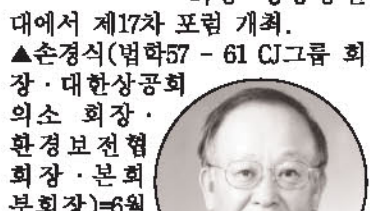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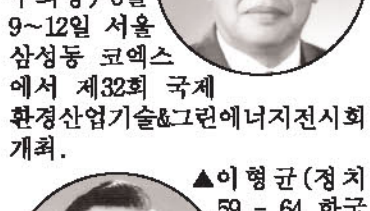
대식 개최.



▲이광규(역사교육56 - 60 모교 인류학과 명예교수·재외동포포럼 이사장)=6월 24일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



대에서 제17차 포럼 개최. ▲손경식(법학57 - 61 CJ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환경보전협회장·본회 부회장)=6월 9~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2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시회 개최.



▲이형균(정치59 - 64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 사우회장·본회 부회장)=6월 29일 서울 무교동 아사히 오리엔에서 경향신문 사우회 총회 개최.



▲이장부(기계공학63 - 67 모교 총장·기후변화센터 이사장)=6월 24일 서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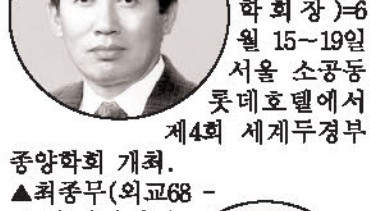
▲김현동(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김관현(의학66 - 7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실두정부중앙학회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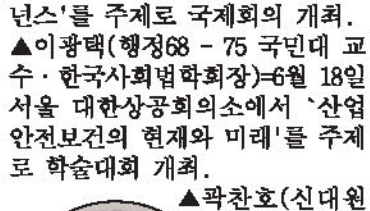
▲김현동(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김관현(의학66 - 7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실두정부중앙학회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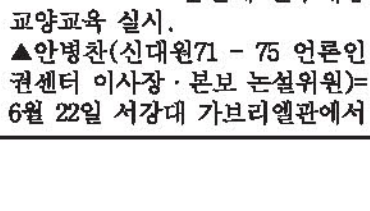
▲김현동(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김관현(의학66 - 7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실두정부중앙학회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김현동(농학63 - 69 수원예총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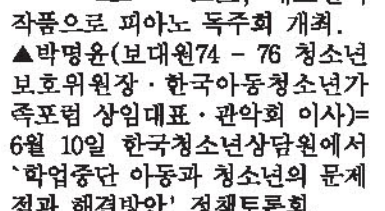


▲김관현(의학66 - 72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대한실두정부중앙학회 회장)=6월 22일 수원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의 내일을 펼친다'는 주제로 전시예술작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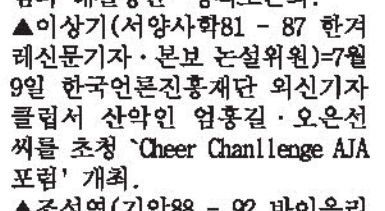
'C'의 눈으로 미디어 보기' 주제의 제4회 언론인권 10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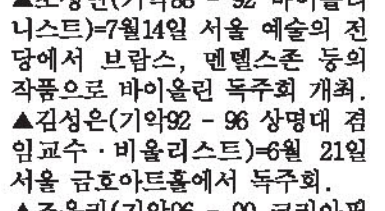
▲김민숙(기약72 - 76 국민대 겸임교수)=6월 7일 서울 세종제임버홀에서 슈베르트, 베토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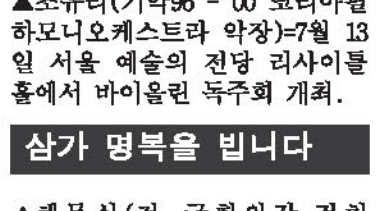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박명운(보대원74 - 76 청소년보호위원장·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상임대표·관악회 이사)=6월 10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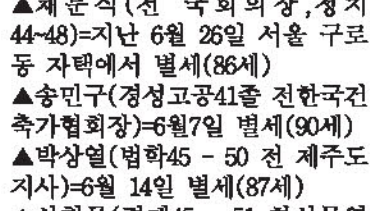
▲이상기(서양사학81 - 87 한겨레신문기자·본보 논설위원)=7월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신기자클럽서 산악인 엄홍길·오은선 씨를 초청 'Cheer Challenge AJA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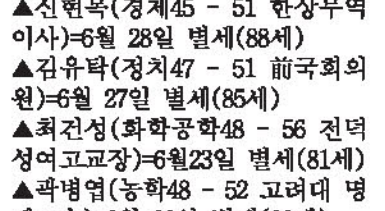
▲조성민(기약88 - 92 바이올리니스트)=7월14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브람스, 멘델스존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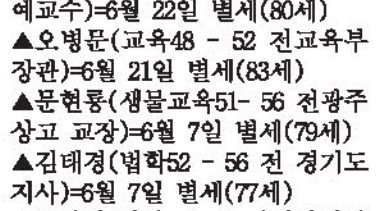
▲김성은(기약92 - 96 상명대 겸임교수·비올리스트)=6월 2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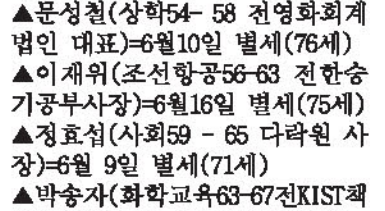
▲조유리(기약96 - 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7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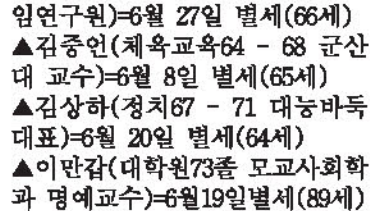
▲김성은(기약92 - 96 상명대 겸임교수·비올리스트)=6월 2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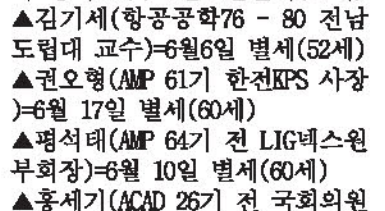
▲조유리(기약96 - 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7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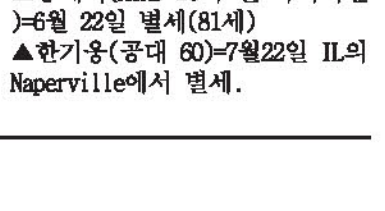
▲김성은(기약92 - 96 상명대 겸임교수·비올리스트)=6월 2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조유리(기약96 - 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7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김성은(기약92 - 96 상명대 겸임교수·비올리스트)=6월 2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조유리(기약96 - 00 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7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채문식(전 국회의원, 정치44~48)=지난 6월 26일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별세(86세)

▲송민구(경성고공41졸 전한국건축가협회장)=6월7일 별세(90세)

▲박상열(법학45 - 50 전 제주도지사)=6월 14일 별세(87세)

▲신현목(경제45 - 51 한상무역이사)=6월 28일 별세(88세)

▲김유탁(정치47 - 51 전 국회의원)=6월 27일 별세(85세)

▲최전성(화학공학48 - 56 전덕성여고교장)=6월23일 별세(81세)

▲곽병영(농학48 - 52 고려대 명예교수)=6월 22일 별세(80세)

▲오병문(교육48 - 52 전교육부장관)=6월 21일 별세(83세)

▲문현룡(생물교육51- 56 전광주상고 교장)=6월 7일 별세(79세)

▲김태경(법학52 - 56 전 경기도지사)=6월 7일 별세(77세)

▲문성철(상학54- 58 전영화회계법인 대표)=6월10일 별세(76세)

▲이재위(조선항공56-63 전한승기공부사장)=6월16일 별세(75세)

▲정효섭(사회59 - 65 다락원 사장)=6월 9일 별세(71세)

▲박송자(화학교육63-67전KIST책임연구원)=6월 27일 별세(66세)

▲김중언(체육교육64 - 68 군산대 교수)=6월 8일 별세(65세)

▲김상하(정치67 - 71 대농바둑대표)=6월 20일 별세(64세)

▲이만갑(대학원73졸 모교사회학과 명예교수)=6월19일별세(89세)

▲김기세(항공공학76 - 80 전남도립대 교수)=6월6일 별세(52세)

▲권오형(AMP 61기 한전KPS 사장)=6월 17일 별세(60세)

▲평석태(AMP 64기 전 LIG넥스원 부회장)=6월 10일 별세(60세)

▲홍세기(ACAD 26기 전 국회의원)=6월 22일 별세(81세)

▲한기웅(공대 60)=7월22일 IL의 Naperville에서 별세.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0년 7월1일 이후 유효 납부자 명단임)

2010~2011년 동창회비

Alaska

윤재중(농대55)

Alabama

유성무(상대66)

Arizona

지영환(의대59)

최윤근(공대59)

California

강신호(사대49)

강정훈(미대56)

강천호(사대58)

강홍제(상대53)

강희창(공대57)

권기상(경영72)

권영덕(공대54)

권오형(사대61)

김기덕(사회대)

김기태(의대52)

김병호(상대57)

김생철(법대54)

김석홍(법대59)

김영덕(법대58)

김영석(문리54)

김용수(경영74)

김원탁(공대65)

김은희(치대46)

김익창(의대49)

김정복(사대55)

김정빈(공대66)

김정희(음대56)

김태웅(의대57)

김현순(간호69)

김희창(공대64)

나두섭(의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노재민(문리9)

문인일(공대51)

민경탁(의대61)

민영기(치대61)

박순자(간호60)

박인수(농대64)

박종성(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형철(사대72)

박희규(수의55)

방명진(공대73)

배병욱(음대58)

부영무(치대70)

서정하(공대55)

서치원(공대69)

신우식(치대62)

신학식(공대61)

심상은(상대54)

양승문(공대65)

오명주(간호77)

오찬수(약대57)

윤희성(치대65)

이건섭(치대54)

이병우(법대54)

이성웅(음대58)

이영수(상대60)

이영일(문리53)

이정옥(공대52)

이필권(보대65)

이학근(치대63)

이홍표(의대58)

임동규(미대57)

임용오(의대57)

임진자(미대60)

임진한(치대68)

임춘수(의대57)

임화식(치대59)

장기열(치대55)

장동석(문리66)

정문용(상대54)

정수만(의대66)

정원훈(상대38)

정인환(법대54)

정재훈(공대64)

정 황(공대64)

채영혜(생물71)

조동준(의대57)

조만연(상대58)

조정시(공대60)

조태목(사대60)

주수봉(공대67)

최승훈(상대53)

최준호(치대58)

최태근(법대48)

하기환(공대66)

하상원(대학원)

현원영(사대45)

황탄익(사대59)

Delaware

이재성(공대70)

Florida

신쌍재(수의59)

오석일(의대64)

윤홍철(의대56)

이정필(의대58)

한용현(의대44)

Georgia

김영서(상대54)

김용건(문리48)

손종수(의대50)

최우백(공대76)

Hawaii

김승태(의대57)

박장부(의대61)

Illinois

고병철(법대55)

구경희(의대59)

김갑조(간호51)

강화영(문리48)

김사직(상대59)

김일훈(의대51)

김재환(사대72)

김현옥(문리67)

배영섭(의대54)

송원희(미대60)

신동화(문리55)

신석균(문리54)

안은식(문리55)

양승표(문리57)

유기정(간호72)

이덕수(문리58)

이소희(의대61)

이소희(간호68)

이승자(사대60)

이승훈(공대66)

이진주(문리55)

이춘우(치대54)

임이섭(미대54)

장윤일(공대60)

정 호(공대62)

정병욱(의대53)

조대현(공대57)

조민규(문리50)

조 철(공대49)

천양곡(의대63)

최희필(의대53)

최혜숙(의대53)

Indiana

한원중(수의83)

곽일성(의대60)

Maryland

공순옥(간호66)

권철수(의대68)

박명영(의대68)

안창호(약대70)

오인환(문리63)

유덕영(공대57)

이제승(의대55)

조세진(의대65)

Massachusetts

박재영(문리48)

정태진(의대53)

Michigan

권영조(의대55)

남상용(공대52)

신동화(문리55)

이성길(의대65)

Minnesota

김권식(공대61)

배병철(문리65)

왕규현(의대56)

Nevada

이관(공대55)

New England

고일석(보대69)

윤희경(문리62)

N.Carolina

이석형(사대56)

조동립(의대52)

New Jersey

고순정(간호69)

곽선섭(공대61)

김영길(문리62)

김완주(의대54)

김정빈(약대54)

김한중(의대56)

박건이(공대60)

박성일(상대58)

박진우(상대77)

박태호(상대76)

반영철(약대54)

손갑수(약대59)

송기인(의대60)

양문석(상대54)

양성택(상대)

육순재(의대63)

윤현남()

이능석(의대57)

이문휘(문리54)

이성근(의대60)

이유찬(의대58)

이제덕(법대60)

이재원(법대60)

이천구(농대60)

한인섭(약대)

허선행(의대58)

New York

곽승용(의대65)

김백균(의대76)

김병술(약대52)

김상만(법대52)

김석자(음대61)

김성현(약대56)

김세중(공대50)

김승호(공대71)

김원영(미대81)

김정희(간호69)

김진승(문리53)

김진자(간호60)

남상태(간호66)

노용민(의대49)

라홍재(공대62)

박고자(음대61)

박수안(의대59)

박찬명(약대57)

선중철(의대57)

송영준(사대60)

양거영(의대49)

양금자(미대69)

유무영(공대66)

윤병하(농대80)

이원애(농대59)

이원호(공대58)

이희경(의대55)

전웅상(공대46)

최영혜(간호64)

한승신(의대70)

한용진(미대55)

황문하(수의76)

Ohio

고남규(의대61)

김용현(경영66)

김윤성(의대63)

송용덕(의대57)

송용제(의대63)

최인갑(공대57)

Oregon

김상만(음대46)

김상순(상대67)

최근영(법대63)

최동근(문리50)

Pennsylvania

고병은(문리55)

김용국(의대58)

김주진(법대54)

이성숙(생과74)

이혜원(의대55)

전희곤(의대54)

이재성(공대70)

장성환(의대55)

전희곤(의대54)

Rhode Island

고일석(보대69)

Texas

박유미(약대62)

신달수(공대59)

김기준(공대60)

김옥균(공대54)

민동식(농대70)

박민자(사대58)

신달수(공대59)

유세만(공대59)

이규진(약대60)

조시호(문리59)

Virginia

김기봉(공대63)

박용걸(약대56)

박정훈(상대55)

박인영(의대69)

방정화(의대61)

유홍일(문리74)

이중희(의대59)

이진호(공대48)

Washington

김주용(의대57)

박종수(공대74)

박진수(의대56)

신창범(법대73)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광명속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6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계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헤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익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여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삼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d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 (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8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r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경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 / 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vo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 가주

상담/ 컨설팅

두키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h,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태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8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field IL 07657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영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i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직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종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웅남 변호사
신웅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a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8

상당/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식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field Park NJ 07660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의료 / 내과 / 전문의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옥(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중(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기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8)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HOU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 사

한국 장 의 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업소특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특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UT

유티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8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 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 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콘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광고 게재 협조요청

모교 서울대에서 발행중인 ‘大學新聞’ 이 미주 동문 여러 분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 게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4단 1면 400만원, 5단(17cm x 37cm) 기준 흑백이 50만원, 컬러 광고인 경우 75만원이다. 또 9단 세로 컬러 광고는 100만원이다.

광고 관련 연락처

전화 02-880-5215(담당자 박이진)
팩스 02-872-951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환(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래(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한종철(치대 62입) 562-860-8544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에드워드 강(사대 60입)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o@juno.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델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윤희경(문리 62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상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페이지 정도(한글 약 3천자)입니다. 원고가 길 때는 부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등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u.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u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 운용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가 완전히 구축되는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차차 개선될 것이므로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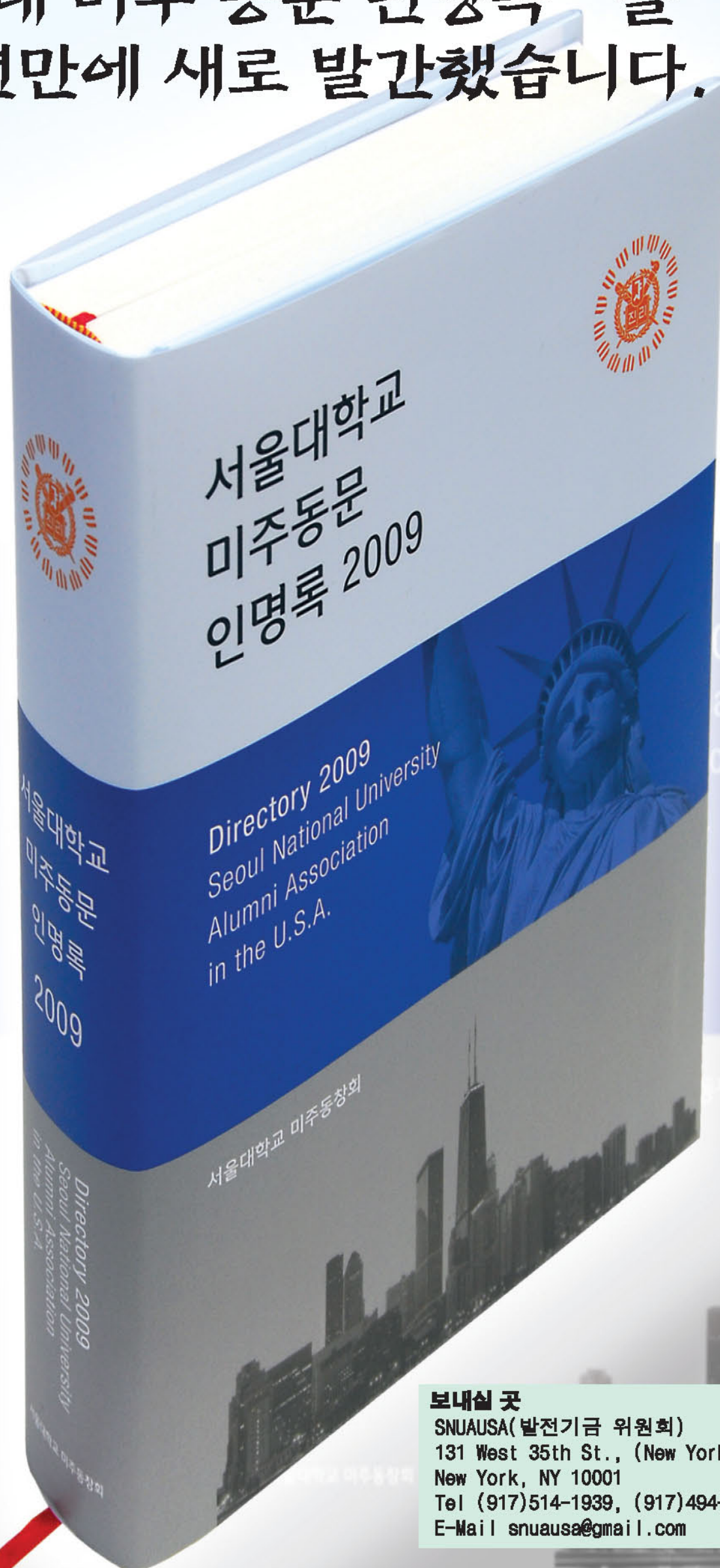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ua.org/>

‘서울대 미주 동문 인명록’ 을 12년만에 새로 발간했습니다.

SNUAUSA(발전기금위원회)는 작은 기부금을 받고 ‘미주 동문 인명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기부금은 모교를 돕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5(미국 거주 동문)는 이 책을 만든 비용과 우송료로 생각하시고 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irectory 2009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내실 곳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ldg.)
New York, NY 10001
Tel (917)514-1939, (917)494-0223
E-Mail snuausa@gmail.com

샤프 여행사 광고

지중해 크루즈

* 광고 문안중 '예약 마감 8월15일'로
돼 있는 문구 전체를 삭제해주세요.